

생과 사는 덧없이 괴로
금주일인 운 것, 능히 이것을 보는
 것이 지혜가 된다 일체의 괴로움을 떠나려
 거든 도를 행하여 모든 것을 없애 버려라
 (범구경·도행록 94절)

東大新聞

| | |
|------|----------------|
| 발행처 | 경북 경주시 석강동 707 |
| 편집인 | 김주익 |
| 주국 | 김주익 |
| 인간부장 | 김주익 |
| 총주 | 김주익 |
| 석주 | 김주익 |
| 구별 | 김주익 |
| 구별 | 김주익 |

편집국 :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225
 ☎ 260-3491~2 FAX(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강동 707 ☎ 770-2057

장묘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영탑공원 타당성'공개

본교는 삼성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9월 18일 오후 2시에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서 개교 1백주년기념사업본부(본부장=한보광 선학)와 삼성경제연구소는 1년의 기간에 걸쳐 공동으로 진행한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영탑공원 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결과를 공개한다.

이날 세미나는 송석구 동국대 총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한보광(선학)교수의 "우리나라 장묘제도의 개선방안"과 박종식 삼성지구환경연구소장의 "영탑공원 사업구상의 타당성"이 발표될 예정이다. 김태복 한국토지행정학회 회장, 황규신(신한국당), 김성근 의원(국민회의), 최열

9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확정 논술고사 폐지·특차전형 대폭확대

본교 '9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이 확정됐다.

지난 5월에 발표한 임시요강에서 밝혀진대로 특별전형 확대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특기자 전형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에 따른 세부사항이 변경 또는 확정된 것이다.

오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할 특차모집은 모집정원을 작년의 3백7명을 선발한 것에 비해 1천7백4명으로 크게 확대조정하였다. 게다가 동점자는 당초 모집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원 선발할 방침이어서 사실상의 모집인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극, 영상학부의 연기·기술 선택 부분 등 시자격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제한을 폐지한 것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정시모집의 경우 '나군'에 속한 본교는 '97년 1월4일부터 7일까지를 전형일자로 한다. 특별력이 부족해 폐지한 논술고사를 대신하여 주간 일반계열과 사범대학, 연극 영상학부(영주캠은 사범대)에 지원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면접고사가 5% 반영되며 이 중 서류면접에

보리수

불교는 맹목적으로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진리의 길을 열고 보일 뿐이다. 그렇게 살고 보여주는 진리를 인간이 스스로 이해하고 납득했을 때, 그것이 곧 그의 공적적인 신념이 되고 종교적 믿음으로 드러난다.

종교 신앙문제와 관련하여 인류사는 남의 생명까지도 앓아 버리는 강제와 강요가 무수하게 자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유독 진리와 사랑을 말하는 인간만이 범례온 비극이자 모순의 역사인 것이다.

인간에게는 어떤 일도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비록 진리의 길이 허락되더라도 그것은 마찬가지로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구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뿐, 그 길에 강제로 끌려나와야 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한한 우리는 붓다가 남긴 지 유명한 '전도선인'에서부터 그분의 태도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제자들의 수가 60명에 이르렀을 때 전도의 길을 격려하면서 당부하신 붓다의 그 말씀 가운데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마을에 갈 때 혼자서 가라'는 대목이다.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말라는 이 말씀은 각기 여러 마을로 가서 더 널리 법을 전하게 하기 위한 뜻으로 흔히 해석된다. 그러나 붓다의 뜻이 정말 거기에만 있었던 것일까?

그 길은 사람들의 이익과 세상의 안락을 위해 법을 전하는 길이다. 불, 셋 혹은 무리지어 다니면서 세를 과시하거나 그 힘을 빌어 믿음을 강요하는 길이 아니다. 홀로 마을에 들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이치에 맞게 법을 설하는 것으로 속한 전도·전법의 길이다. 돌아 다니지 말고 혼자서 가라는 붓다의 뜻은 진실로 여기에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권위를 앞세우거나 전봉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다수의 위력으로 종교와 신앙이 강요된다면 이는 이미 진리의 길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일은 한낱 종교의 강매에 지나지 않는다.

불교는 처음부터 믿음을 강요한 일이 없다. 맹목적인 믿음만 그러한다. 진리 그 자체마저 절대화 시키지 않는다. '최고의 진리는 정해진 법이 아니다'라거나,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인 다라라고도 감히 말할 수 있을만큼 불교에는 절대화된 도그마가 없다.

이제 불교에서라면 최소한 '종교적 자유가 강제'란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그러함에도 그렇게 말하고 자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이들에게 먼저 경계되어 있는 자기 사고의 결집부터 벗어나고, 맑은 눈으로 불교를 다시 바라보기를 권하고 싶다.

혼자서 가라

이제 불교에서라면 최소한 '종교적 자유가 강제'란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그러함에도 그렇게 말하고 자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이들에게 먼저 경계되어 있는 자기 사고의 결집부터 벗어나고, 맑은 눈으로 불교를 다시 바라보기를 권하고 싶다.

이제 불교에서라면 최소한 '종교적 자유가 강제'란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그러함에도 그렇게 말하고 자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이들에게 먼저 경계되어 있는 자기 사고의 결집부터 벗어나고, 맑은 눈으로 불교를 다시 바라보기를 권하고 싶다.

고승초빙법회 고승초빙법회가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에서 오늘(16일) 4시에 열린다.

공인회계사 10명 합격 역대최대 성과기록

'96공인회계사 2차(최종)시험에 본교 학생 10명이 합격했다.

합격자는 안길준(행정학과), 전상훈(회계학과), 정수민(통계학과), 대학원회계학과 1학기, 정홍준(회계학과), 이재성(경영학과), 이광영(회계학과), 유영근(경영학과), 허용범(회계학과), 조병관(회계학과·대학원 회계학과수료), 주정호(회계학과·대학원회계학과 2학기) 등이다.

서총련 진군식 "공중"해산 한총련, 시국대토론회 제안

"허가받지 않은 모든 집회는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강제해산 시키겠다"는 무조건적인 경찰의 방침이라 학생들의 단순집회까지 헬기를 동원하고 원천봉쇄를 시켜 대학내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인하대에서 인하대학생들끼리만 모인 '공안탐안 규탄집회'에 경찰은 헬기를 동원해 강제해산 시켰고, 고려대에서도 학내집회까지 시작되자마자 학교를 원천봉쇄 한 것에 이어 지난 12일 80여명이 모인 본교 총학 진군식에도 2대의 헬기를 동원해 강제해산시키려 했다.

또한 13일 열린 서총련 진군식도 행사예정지인 연세대를 경찰이 원천봉쇄 함에 따라 학생들은 서울대로 장소를 변경해 행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은 서울대안으로 헬기 4대를 투입해 최후역을 뿌리는 등 진군식이 시작되기 20분만에 강제해산 시켰다.

이날 서울대에 모였던 8백여명의 학생들은 삼삼오오 흩어져 학교를 빠져나왔다.

한편 한총련은 지난 13일 서울대에서 진행된 서총련 2학기 진군식

야구부 4강만족 단국대에 7:11로 저

본교 야구부(감독=황동훈)는 지난 10일 '96 전국대학야구 추계리그 전 준결승전에서 단국대에 7대11로 저 결승전들이 좌절됐다.

7일까지 7대7의 팽팽한 접전이었던 이날 경기에서 야구부는 박정환(제과)선수가 2점홈런을 치는 등 좋은 경기를 보였으나 8회초 투수 난조로 4점을 내주어 아쉬운 패배를 했다.

교수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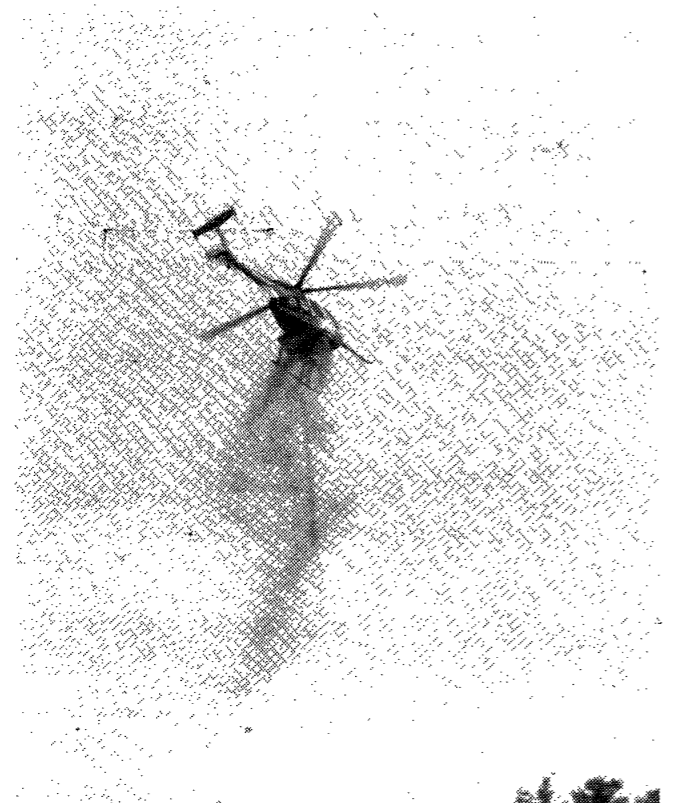
▲정용길(정치외교학)=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는 '통일을 위한 남북 해외동포 학자 학술회의'에 참가.

▲김정관(의학)=오는 20일부터 2일까지 경기도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되는 제21차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해 '인조광물섬유에 의한 건강장해의 연구'논문 발표.

▲이정우(의학)=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일본 요코하마 태평양콘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7차 아태소화기 내시경 학회에 참가.

알림

이번호 '교육개혁 시리즈'는 쉽니다.



◇연세대 사건 이후 경찰은 학내집회까지 헬기를 동원해 학생들을 강제해산시키고 있다. 사진은 13일 서울대에서 진행된 서총련진군식 장소에 헬기로 최후역을 뿌리는 모습.



◇내가먼저... 지난 9일 본교 송석구 총장을 비롯한 교무 위원들이 교내 환경미화원을 실시했다. 깨끗한 캠퍼스 만들기 일환으로 한달에 한번씩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중문에서 쓰레기를 줍고있는 총장 모습. (이태훈 기자)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광고

동대신문사에서 내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싶다

모집안내

- △모집인원: 서울 및 경주캠퍼스 0명
- △응시자격: 1학년 남·여 재학생
- △모집분야: 취재·사진기자
- △제출서류: 본사 소정양식 1봉, 명함판사진 1매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
- △원서접수: 10월4일(금) 오후5시까지
- △전형방법: ① 자기소개서 - 200자원고지 30매내외로 작성해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제출
- ②면접
- △면접일시 및 장소: 10월4일(금) 오후6시 서울·경주캠퍼스 본사 회의실
- △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동대신문사

서울캠 백혈병 학우 O형 남학생 도움 절실

지난 7월이었다. 천장을 비롯해 난방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 해화관 건물에 학생회실 장비와 그 외의 중요물품의 확인차 학교에 들른 적이 있었다. 그 당시 4학년이었던 은주는 졸업 논문 준비로 실력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개강을 하고 곁에 그늘려진 모습의 여학생우들을 하나둘씩 학교에서 만날 수 있었을 때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경주캠퍼스의 김은호 학우처럼 우리과의 한 학우가 급성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다. 93학번으로 이름은 '김은주'. 4학년 학교생활의 마지막 학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92학번인 나로서는 1년후배인 은주가 여느사람보다 안타까웠고 한 인간의 힘이 얼마나 나약한지도 깨달았다.

저번주 토요일 은주에게 수혈하기 위해 피검사를 받으려 학우들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갔다가 은주의 오빠를 만났었다. 한번 하는데 1천5백여만원이 든다는 항암치료를 세번 계획하고 있는데, 40일간의 1차 치료는 끝났고 지금은 무궁술에서 치료를 하고 있어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다. 오빠의 말로는 항암치료에는 계속적인 피가 필요한데 예상외로 잘 되지 않는다고, 특히 O형 남자의 피가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지금 응용생물학과에서는 내부적으로 '학번별 모금'을 하고 있다. 물론 학생의 신분으로 엄청난 액수의 치료비나 수술비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들

과 같은 강의실에서 공부해왔던 은주에게 자그마한 온정을 주기위해 북학생 위주의 남학우들은 한결도 하고 특히 O형 남학우들은 직접 수혈하기 위해 병원을 직접 피검사도 받고 다른 여학생우들도 한결중세를 모았다.

은주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지만 "잘 될것이라 믿는다"며 희망을 잃지 않는 오빠의 모습을 보았을 때, 경주캠퍼스의 김은호학우처럼 우리 서울캠퍼스에서 도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이에 다시 해맑은 모습으로 학교 교정을 거닐 은주를 생각하며 여러 동국학우들의 도움을 청하고자 한다. 현재 가장 절실한 요구되는 것은 O형 남자 학우들의 도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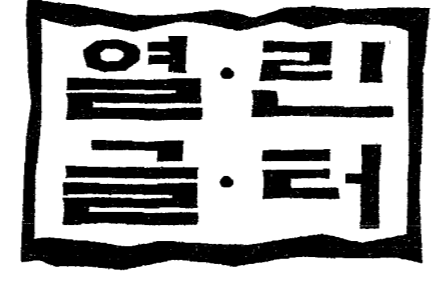
동학의 많은 학우들의 관심과 정성을 기다린다. 연락처: 260-3321 (학교) 012-850-1385

심 주 령
(생자대 학생과)

한반도 독자적인 통일모델 강구돼야

90년대 들어서 우리 사회의 통일 논의가 이전보다 활발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8.15 한총련 통일대추회의'의 주요 이슈는 통일문제였다. 우리는 독일통일을 모델로해서 한반도의 미래를 예상하기도 하고 다양한 통일모델을 상정(想定)해 보기도 하지만, 주된 관심은 통일모델에 있다. 따라서 동·서독의 경제력의 차이와 통일비용에 관한 자료를 근거삼아 통일조국을 미리 그려도 하고, 통일의 시기를 늦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반도는 독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열람실·대출실 사용 학생 주인의식 필요

도서관에는 가장 지저분한 곳이다. 한 곳은 열람실이다. 도서관 열람실은 모두 다섯 곳이 있는데 그 중 칸막이가 설치된 곳은 세 곳이다. 칸막이는 서로에게 피해를 줄이고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런데 칸막이가 부족한 탓인지 그 옆에 신문을 걸쳐 놓고, 심지어는 사람이 지나드는 한 곳을 뻗 삼면을 모두 신문으로 감싸놓아 마치 절충성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사람들이 지날 때마다 부딪히는 소리, 여기 저기 팔바닥에 울려져 있는 신문들, 아무리 재활용을 한다지만 불쌍 사납게 신문을 걸쳐 놓고 공부해야만 하는가.

또 다른 한곳은 대출실이다. 겉으로 보기에 어느 곳보다 조용하고 깨끗하지만, 책 하나 하나를 넘겨보면 깨끗한 것이 없다. 같은 물본이 그 속 내용에 있어, 불쾌하게 줄을 긋고 나서서 하고, 심지어는 오색찬란하게 형광펜으로 장식을 해 놓았다. 더 나아가 중요 부분을 찢어 가서 책으로서의 생명을 다하도록 해 놓았다. 어느 누가 지저분한 책으로 공부하고 싶겠는가. 책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것이지만 일부 개개인의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학교 당국에 무엇을 바라기 이전에 학생 스스로가 먼저 주인의식을 갖고 생활해야 할 것이다.

임 연 길
(인문대 한문학과)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하이텔(DGU9번방, ID: dggpress메일)과 여론함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8

학기중 학내공사 안내·안전장비 먼저

푸른 가을하늘의 학기초, 학교 어느 곳을 보아도 학우열로 뜨겁다. 강의하는 교수님이나 학생들이나 열심이다.

그러나 가끔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철관을 지르는 쇠소리가 강의에 적절하게 방해될 정도로 들리는 것이다. 가끔씩 땅치두드리는 소리가 첨가되거나 한다. 또 북도소리나 외로운 사다리를 놓고 천정 전기배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 밑을 지나가다 보면 가끔 아저씨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학생 그 밑에 조심해"

학교측은 8월31일까지 학내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공문을 부착했다. 본래 개강전까지 마쳐야 할 공사를 8월31일까지 한 것도 문제가 있으나 강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방해가 될 정도의 소음과 어떠한 안전장비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더욱 문제되는 것이다. 어떠한 표지나 안내도 없고, 언제 끝나는 무슨공사인지조차 학우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어쩔수 없이 강의시간에 공사를 해야 한다면 최소한 사과공문 및 안내공고를 붙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떤일이 벌어지는지조차 모르면서 강의실에 울리는 소리에 짜증내는 학우들에게 있어 그런 공고문은 최소한의 기본적 절차이자 학우들의 이해를 도모하지 않을까? 학사 일정의 편의를 따지며 공사를 진행시키기보다는 학우들에 대한 안전

페미니즘 논의 호기심 넘어설 때

요즘 우리는 얼마나 커다란 성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가.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 성적 소수 집단들이 'COMING OUT'을 단행하고, 다투기 꺼려하던 메스컴들도 앞다퉈 취재의 열기를 내고 있다.

또, 대학에서는 성적 소수자 모임이 결성되고, 제2대학이나 하면서 성정서, 페미니즘 강좌가 눈길을 끌고 있으며 성에 관한 교양 강좌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낱 유행가는 유행에 지나서는 안되겠다.

성에 관한 관심이 일반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성 문제가 지배·복종 관계 또는 상품 교환 관계가 아닌 아름답고 친밀한 인간관계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제는 호기심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처음엔 두려움도 많으리라 본다. 페미니스트라 불리는 것, 성의 새로운 가치관에 대해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

더구나 남성이라는 쥐고 있던 기득권을 위협받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여성 운동은 비록 여성끼리의 연대를 강조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모든 인간이 자신의 신분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각자의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 살리면서 평화스럽게 공존해 나가는 인간행방 사회를 위한 것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호기심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성, 여성운동이란 것을 가슴에 품어 안을 수 있어야 하겠다.

황 상 훈
(이과대 반도체학과)

'한국 국제 관광전' 규모 비해 실속 부족

이번 제9회 한국국제관광교류전(KOTFA)은 서울 KOEX 대서양관에서 53개국 6백여명-각국의 여행사, 항공사, 호텔, 레프조와 나라별 관광공보처-들이 참가한 가운데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며 많은 관람객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무대에서는 시간대별로 각 나라의 전통음악과 민속놀이도 진행되었고 자기 나라가 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 행사를 벌이는 곳도 있었다.

올 여름 나는 부산국제관광전에 다녀왔었지만 그 규모와 행사내용의 빈약함에 실망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는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대회를 나온 후 부산에서의 비수한 아쉬움을 가져야 했다. 물론 행사의 규모나 화려함에 있어서는 전자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업체를 대부분의 '문화·관광교류'라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상품판매를 위한 홍보에 열을 올리기에 비해서 어쩌면 재활용품으로 밖에 쓰이지

못할 것 같은 팔팔땀을 내뿜는데만 정신이 없었다.

'문화와 관광의 교류'라는 원래의 목적은 팽배해져 있는 상업주의에 거러 그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 했다. 그나마 부응하고 있는 것은 장내에 울려 퍼지는 각 나라의 민속음악과 예쁜 얼굴의 무용단들 뿐인 듯 했다. 또한 참가업체들이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에 너무 치우쳐 유럽과 남미, 중동아시아의 참가업체들에 비해 열세였다.

그러나 여행이나 관광에 대한 관심과 인기를 증명이라도 하듯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나와 관광학도의 열렬인 우리들의 마음을 호탕하게 하였다. 이런 국민들의 태도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대회부터는 관광학이나 문화부 등 관계당국이 좀 더 실속있고 알찬 내용을 선보이길 기대하며 아울러 민속춤이나 민속음악이라는 상품적인 쇼보다는 민속공예품의 제작과정을 선보인다는 등 기존의 간담한 언어를 관객들이 쉽게 가르쳐 주는 등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양 수 경
(삼경대 관광과)

나기

마이클 잭슨 공연

▶ 물론, 마이클잭슨은 우리의 외화를 끌어갈 것이다. 그러나 연간 수많은 외화를 할리우드 영화에 쏟아붓고 있는 처지에, 이를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 어쩌하면 보는 이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단체가 나서서 그러는 건 어불성실! 그렇다고 마이클잭슨이 테세탈가수도 아닌데...

▶ 인격과 실력은 무관하다. 그의 도덕성은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도덕성과 콘서트는 별개! 그의 팬들은 콘서트를 즐길 권리가 있다.

▶ 별려라 그리고 나와 겨루자

▶ 마이클 잭슨아! 마이클 조 단도 데려와라.

▶ 마이클 잭슨의 공연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쓸데없이 성형수술을 낚벌하는 이들을 위해...

▶ 난 마이클 잭슨이 보고 싶은 거지 그의 도덕성이 보고 싶은게 아니다.

▶ 우리가 서태지와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의 상업성이 아니라 음악성과 도덕성이었다. 우리가 잭슨을 좋아할 수 없는 이유는 알뜰의 역이다.

▶ 언론을 이해하기 힘들다. 그는 이미 한동안 잭슨이 아닌가? 왜 그렇게 극성인지...

▶ 주한미군이 또 우리나라 여성을 살해했다. 마이클의 노래를 반대하진 않지만, 제국주의 미국의 문화적 침투는 결사 반대한다.

▶ 개는 그 비싼돈 내고 우리가 볼줄 아니부지? 품개라 그래!

▶ 마이클 잭슨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독자 만평

정 수
(인문대 고미사과)

오 솔 길 - 경주청년회 회장 김홍섭(국문91학)

"강요보다 내 삶 통해 동화되기를..."

애매하게 사회에서 표현되고 있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의사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지역사업과 통일사업을 함께 담아가는 게 목표지요."

"무로 기타교실과 '지역기행 캠프' 등 여러 다채로운 기획으로 경주 지역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그의 고향은 경주가 아니지만 자전거를 타고 지도를 가지고 경주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고서로 신라역사를 공부해 "경주투박이보다도 더 설명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며 김홍섭 동문은 신구 웃음을 짓는다.

그의 또 하나의 모습인 노동자, "육체노동자들 스스로가 사회의 선진에서 못벗어나고 스스로가 자신들을 낮게 평가한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중 상당수가 이 때문에 임금의 대부분을 술값이나 유희비로 탕진하는 것이 현실이구요"라고 말하며 안타까워한다.

얼마전 결혼한 부인과 함께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그는 현재 대구경북지역 민주단체 협의 회장으로서 남을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그것의 한계성을 느끼고 전제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운동을 하기로 결정했지요" 그리고 92년 5월에 결성된 것이 '경주 청년회'이다.

"청년세대라는 것이 참으로

과연 생활과 사회운동이 일치할 수 있을까.

이름 삶의 목표로 정하고 실현하기 위해 밤과 낮에 두가지 일을 살생없이 하며 살아가는 '경주 청년회'회장인 김홍섭(경주 국문 91학)동문을 만나보았다.

황 상 훈
(이과대 반도체학과)

목격골

■ 체육교육과 열심히 운동해서 잘되자. - 96890274

■ 전자·전기공학부 여러분 학생회 구성잘해서 열심히 활동하세요! - 96710205

■ 전자·전기 공학부 학생회가 원할히 잘(Nice) 성립되길 바랍니다. - 선배

■ 상인이 오빠의 조속한 석방을 기원합니다. - 자주공대

■ 상처를 받고 누군가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나는 간다. - 탈. 어번 96

■ 친구아! 사랑한다. - 서도 96

■ 승환아 사랑한다 - 영주

■ 필성이형! 국가보안법은 말로만 없었지 않았죠! - 국·보·철을 힘있게 외치는 한 아이

■ 동학이형 군대 잘 다녀와! 정은이 누나, 고무신 깨꾸로 신으면 나한테 혼나! - 신방과 T-G

■ 20일엔 문일·동일 동문회 모두 오세요. - 형수를 아끼는 동지·동문 일동

■ 순호 형! 결혼을 축하합니다. - 장

■ 미경누나 생일을 동현이가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 강동현

■ 생일 축하해요! 미경누나 - 전산통계 95 일동

■ 테니스부 18기 박재진 선배의 26번째 생일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 DUT(테니스부)일동

■ '96 주지정이 생일이랍니다. 언제 나가요? 9월15일 이랍니다. 축하해야 할까요? 당연하지요. 축하한다. - 96중 예쁜 누나가

■ 주지정의 생일입니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라고 전해주세요. - 96 학우가

■ 최수원 배배장만 축하한다. B·P 012-297-1379 많이 이용해주세요. - 96 동기가

■ 열심히 합시다

■ 배타이 대학의 포스터의 그림

동/악/광/장

다함판 식당

| | | |
|-------|------------|------------|
| 16(월) | 돈까스(1300) | 김치찌개(1000) |
| 17(화) | 장미떡(1000) | 살찐떡(1000) |
| 18(수) | 양파떡(1000) | 소고기떡(1200) |
| 19(목) | 참깨떡(1000) | 감자떡(1500) |
| 20(금) | 호박떡(1200) | 떡국(1000) |
| 21(토) | 소고기떡(1200) | |

동국관 학생식당

| | | |
|-------|------------|-------------|
| 16(월) | 돈까스떡(1500) | 물냉면떡(1200) |
| 17(화) | 단팥떡(1200) | 회고국떡(1200) |
| 18(수) | 반죽떡(1500) | 김치부용떡(1000) |
| 19(목) | 떡이떡(1200) | 행계떡(1300) |
| 20(금) | 생선까스(1300) | 라면떡(1200) |

교직원 식당

| | | |
|-------|-----------|------------|
| 16(월) | 초밥떡(2200) | 불고기떡(3000) |
| 17(화) | 이구떡(3000) | 철국떡(2500) |
| 18(수) | 토란떡(2500) | 돈반떡(2700) |
| 19(목) | 버섯떡(2500) | 오징어떡(3000) |
| 20(금) | 초밥떡(2200) | 생선떡(2200) |

동/악/광/장

축하해요. 뛰어난 연출 기획 화려한 배역진 막강한 Staff 꼭 성공하시길 - 팬클럽

■ 축하해요. 꼭 한턱내길. - B반중환형

■ 축하해요. 뛰어난 연출 기획 화려한 배역진 막강한 Staff 꼭 성공하시길 - 팬클럽

■ 축하해요. 꼭 한턱내길. - 김두연

■ 불교학과 하계 수련회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치길. - 불교학과 96

■ 사랑하는 흑아 못말리 데리고 다니느라 수고 많았다. 2학기때도 역시... - J

■ 그리핀과파와 해경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잘 살아보자! - S-W

■ 보스! 드디어 장학금을...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동문과 거목 동생들이

■ 보아와 호아의 200日-정인의 생일을 축하하며 불치병이 빨리 좋아지길 바란다. - 상양자

■ 이쁜 정아의 생일 축하해! - 경상학부 C반

■ 26日-패지 정희아! 생일 추가 한데이!!!

■ 재현아, 축하해 그리고 고맙습니다. - 능구렁이

■ 9월19日 20日 예오라지 공연

■ 2학기 첫 동문회 40, 41, 42기 북학생들에게 선행한 마음 하늘을 찌른다. 몸 조심하자, 그날은 후배들 고맙고, 형 너희 믿는다. - 김두연

■ 불교학과 하계 수련회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치길. - 불교학과 96

■ 나의 사랑하는 애마가 마부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아, 슬프다. - 마갖간 잃은이가

■ 미시축구부 White Elephant 꼭 우승합시다!! - 96매니저 송

■ 사랑하는 나의 동생들 2학기 첫 모임에서 보여준 성원과 관심에 감격했다. 서로 아끼며 잘 살자. - 영

■ 사랑하는 나의 동생들 2학기 첫 모임에서 보여준 성원과 관심에 감격했다. 서로 아끼며 잘 살자. - 불취아

■ 사랑하는 나의 수습 선배야. 우리 서로 가슴에 깊은 상처를 새겨 놓지 마. 서로에게 전할릴 모습으로 한발짝 다가서자. 모든걸 용서하라!! - 형과 수습일당

■ 열심히 합시다

■ 동국음악회 합창연습 시작했습니다. 동음 화이팅! - 17기중

■ 소나비 새 식구들이 더 늘었는데... 열심히 해 봅시다. - 87기 P-H-J

■ 동식이 개강을 맞아서 힘내자! - 멀리서 주누

■ 사랑하는 내 애들들! 나는 너희들이 밭아구 국가대표 될거라는 거 안다. Fighting. - 불동96호

■ 열심히 합시다

온방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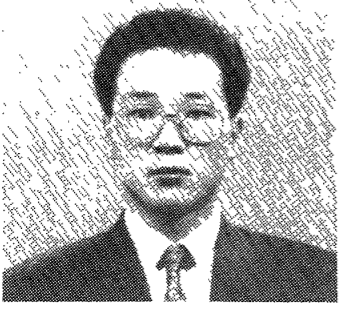
축하합니다

■ 형수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잘 먹고 잘사십시오. 회계학과와 경사를 저해 '동지' 동생들이 축하드립니다. - 형수를 아끼는 동지·동문 일동

■ 순호 형! 결혼을 축하합니다. - 장

■ 열심히 합시다

대선 겨냥 선심성 예산배정 국민부담 초래



박동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연구원

시사논단

재경원 예산안 책정의 문제점

5%를 넘어서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성장수준의 2배 이상이 되는 14%나 늘리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결국, 납세자인 국민의 부담 증가라는 측면과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재정을 늘리는 것은 어려운 현 경기상황에서 국민경제에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재경원이 제출한 재정규모 72조원은 일반회계 66-67조원 규모를 계상, 국세 64-65조원, 세외수입 2조원, 재정특종자특별회계는 한국통신주식 매각을 축소하고 담배 인삼공사 특별매각 계획을 반영하여 연·기금 예탁 3.5-4조원과 주식매각·배당 등 1.5-2조원을 통하여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세출예산(안)구조는 경직성 경비(교부금, 방위비, 인건비, 예비비 등) 37-38조원(96년보다 3.5-4.5증가)과 사업비 34-35조원(96년보다 4.5-5.5증가)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별 사업비는 전체규모의 44% 비중으로 다음사업에 증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표 참조)

이러한 예산구조를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원칙적인 면에서 예년과 다른 예산편성 지침의 원칙과 당초 예산편성의 기초로 삼은 정부추진의 기조의 변화가 반영된 측면도 없지 않지만 경제현안과 97년 대

선을 겨냥한 공약성 내지는 표대지기 예산배정도 빠지지 않은 것 같다. 총규모 72조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직성 경비 중 자료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당정협의 속에서 이루어진 새마을운동본부, 바르게 살기운동 중앙협의회에 사업비 지원방법으로 1백10억원을 배정기로 한 것은 이른바 관변단체의 표계산 반영이다. 이들 관변단체들은 노태우 정권시절 61억 원이나 되는 재원을 확보하였다가 1995년까지 삭감된 부분이였다. 특히, 바르게 살기운동 중앙협의회는 경우를 한탄도 받지 못했다.

또한, 국가보훈처예산중 공복회 등 국가보훈단체운영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4.5%증액된 1백15억이 배정된 것도 대선을 위한 선심성이랄 수 있을 것이다.

부처별 예산중에서 공보처의 새해예산 배정으로 '국가주요시책 광고비'가 2배로

| 분 야 | 96년 예산 | 97년 예산 | 증 가 액 |
|------------|--------|--------|--------|
| 사회간접자본 | 67,920 | 76,733 | 8,813 |
| 동여추구조예산 | 3,250 | 38,516 | 35,266 |
| 환경, 문화, 안전 | 26,728 | 33,249 | 6,521 |
| 사회복지 | 28,764 | 32,711 | 3,947 |
| 교육개혁 | 12,716 | 14,708 | 1,992 |
| 중소기업 | 12,157 | 13,984 | 1,63 |
| 과학기술 | 17,705 | 23,267 | 14,438 |
| 외교/통일 | 1,830 | 2,044 | 214 |

자료:재경원, '97년 예산(안)편성, 재구성

(단위:억원)

증가되었고 '96년에 비해 47%나 증가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예산증액을 국민의 세액부담과 대선을 겨냥한 포석으로 보는 정치권의 여론을 감안하면 이 사안은 뜨거운 감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문체부의 경우 '건전한 종교활동지원'이라는 개념으로 96년보다 1백37.5% 증가한 12억7천이 배정되어 예산남비 내지는 대선을 겨냥한 종교적포석, 종교골어안기(특히, 불교)라는 의심을 받게 한다.

재경원이 제출한 '97년 예산안'의 결론은 두가지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현경계의 경기위축에 대한 확실화 방법으로 사회간접자본 기반시설구축을 통한 고용과 내수의 확대를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97년 대선의 승리를 위한 여러 단체지원과 정부부처를 통한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20일 '97년 예산편성에 대한 국회심의과정에서 대선연이라고 지적되는 부분에 대하여 여야의 격렬한 예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예산안 편성이 나와 관계없는 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국민들의 세금의 쓰임에 관한 것이기에 예산의 낭비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을 직시하고 관심과 감시가 요구된다.

사설

대자보 문화 자리찾기

어느 대학에서 학생들이 게시한 불법 대자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교수·학생간에 밀고당기는 불쌍사나운 모습이 보이고, 일간지 상에 무슨 큰 패티이라도 벌어진양 호들갑스럽게 보도되자, 당국은 수사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보직교수들이 소매를 걷어부치고 나선 속사정이야 짐작하는 바 있고, 이에 학생들이 약에 받은 마음으로 대든 정황도 알만하다.

대학이 게시문화의 선두로 자리잡는 대자보가 왜 이제와서 시비거리가 되는가, 역시 한층련 한파의 일파로, 이적성 내용과 불법 게시라는 잣대로 대자보가 철거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가의 다양한 게시문화가 실질적으로 대학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학생들만의 자유분방한 여론광장으로 자리잡아 오면서 지난날 감압통치의 시대와이여 통제되고 외국인 정보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학가의 여론광기에 큰득을 해왔다. 주로 학생운동을 주도하는 조직의 선전선동기능에만 활용되어 왔거나 일방적인 정보해석과 감압적인 전파의 구실을 했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긴하다. 그러나 대학의 미덕인 자율성과 비판성 그리고 실용성과 독창성이 그나름대로 구현될 수 있는 매체로 그 효과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왔다.

사실 요즘 대학가의 대자보현황이 너무 무질서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혀 검증되지 않는 일방적인 정보의 무책임한 확산, 조악하고 혐오감을 유발하는 수준의 표현양식, 교육환경을 훼손하는 지경인 방만한 게시양태가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장소에 상관없이 무질서하게 나뒹구는 대자보와 플레카드는 소기의 선전·전달효과를 얻기보다는 대중들의 시각감을 조장하고 외면당하기 일수임을 깨달아야 한다. 큰 목소리로 호객행위하는 상업의 물건이나 포장지 요란스러운 상품이 양질의 것은 아니지 않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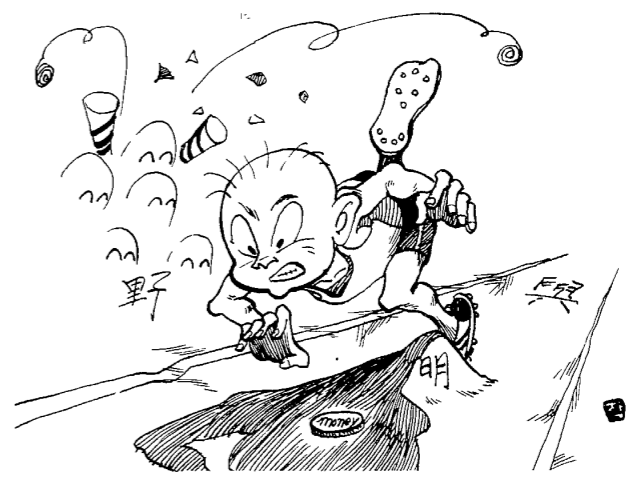
이제 우리 대학에서도 틈을 좁 맞추고 차분해지자, 목적을 높이고 현란한 몸짓을 하여 자기전해를 남에게 강요하는 것도 일종의 폭력이다. 소정의 게시관에 단정한 게시물들도 충분히 자기들의 참여하고 감행하고 절실한 정보와 여론을 공유할 수 있음을 믿고 실천해보자.

학생들도 함부로 멋지러지 내걸고 붙이는 지나친 낭비를 반성하고, 대학당국은 학생들의 대자보 활동을 막무가내 봉쇄하고 철거할 생각만 말고 보다 적정하게 게시할 공간을 마련해주고, 또 반론권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공간과 정치도 마련해야 한다.

대자보가 대학의 품위와 질서를 저해하는 악용이 아니라 대학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대학다운 참신성과 제치·유모어가 실면 발휘되는 열린 언론의 공간이어야 하겠다.

풍속만평

고대성



인간의 가치를 새롭게 실현하는 기업 - 現代

◇ OECD 교육환경안 발표 분석

대학 연구소홀... 선진국 진입장애

뒤쳐진 교육수준으로 OECD가입 시기 상조

전 동 환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실장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교육위원회는 지난 2년간 우리의 교육제도·교육실적·교육개혁·대학교육 등 12개 분야에 걸쳐 한국의 교육실적을 총체적으로 조사·분석해 작성한 종합평가보고서 초안을 최근 우리 정부에 제출했다.

오는 10월에 최종 확정돼 발표될 예정인 1백6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우리 교육의 현주소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국제적 평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교육분야에서 나타난 선진국과의 격차를 국제적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백과사전적 조언이 되는 셈이다.

OECD가 우리 교육의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한 것은 대학의 빈약한 연구역량 및 기능이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지난 94년 기준으로 공공기금 중 82.6%가 정부연구기관에 투자됐고, 겨우 8.2%만이 대학에 투자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93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학이 쓰는 연구비 총액은 5억달러로, 일본(1백23억달러)의 4%, 독일(83억달러)의 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같은 공공기관 및 기업의 대학에 대한 연구비 투자 부재는 대학의 연구기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실제로 95년 현재 우리나라 연구논문 발표 건수를 보면 미국의 2.1%에

불과한 5천8백건으로, 세계 22위에 머무르고 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한국의 대학생들은 교육에 너무 치중한 채 연구구를 소홀히 해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분야의 신기술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한국이 외국의 기술의존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또한 "공공교육비가 턱없이 부족한 반면 사교육비는 지나치게 비대한 것도 한국의 교육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발표했다.

실제로 94년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교육비는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1/3에 불과한 11조여 원이다. 이를

GNP로 대비하면 세계 1백32개국 가운데 84위에 불과한 4.2%로, 미국(5.3/90), 프랑스(5.8/93), 캐나다(7.6/92), 이탈리아(5.4/92)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UNESCO 통계연감, 95년)

반면, 94년 현재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총액은 GNP의 6.03%인 17조 여원으로, 공공교육비 보다 무려 6조 원이나 더 많았다. 게다가 GNP대비 사교육비는 77년 2.19%, 82년 3.98%, 90년 5.5%로 계속 증가해 왔다. (한국교육개발원, 94년)

그래서 OECD조차 한국에서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방과 후 학교차원의 과외를 활성화하되, 빈부격차에 따른 사교육 해택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그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점과 함께 "직업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방대 전문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반 4년제 대학 졸업생과 이들 대학 졸업생 사이의 월급 격차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밖에도 "주입식 알기 교육에 의존 하는 교육방법, 교원들의 자질과 능력의 향상을 가로막고 있는 교원정책, 낙후성과 비민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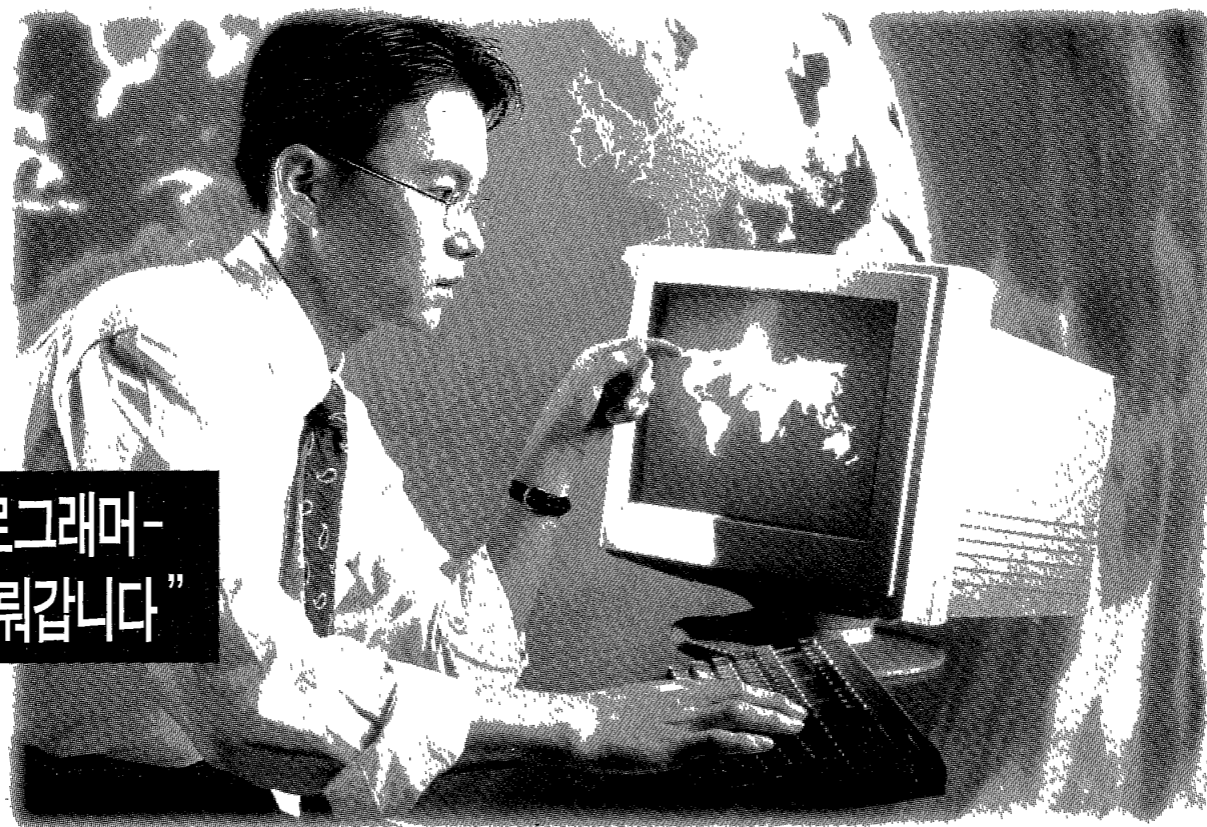
으로 점철된 교육자치체 등도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들이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OECD 보고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교육의 수준은 OECD 회원국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그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당장에 OECD 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권에 대한 지지 확대 등 정치선전 효과는 클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소득을 따져볼 땐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가 진실로 우리 교육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구호만 외치고 계획만 거창한 교육개혁을 운운하기 보다는, 차라리 OECD가입을 유보하고 대학시장 개방을 최대한 연기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국민회의 등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의 박찬종씨조차 OECD가입을 유보해야 한다고 한 마디에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OECD에 가입할 필요는 더욱더 없지 않나.



사람, 사회, 미래를 위한 가치경영



"세계 최고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저는 현대에서 그 꿈을 이뤄갑니다"

국제기능올림픽 정보처리분야 한국의 첫메달 수상자 현대정보기술 김성민 사원

낮선 땅, 모두가 실력기로 보이는 낯선이들... 첫 출전에서 오는 긴장감은 날 위축시키기에 충분했다. 만약 현대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없었다면 순간 자신감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국제기능올림픽은 최고의 기능인들이 모이는 세계적인 대회!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시작된 7개월간의 훈련은 모르는 것을 배운다기 보다 '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준 시간이었다. 특히, 직장 선배님들의 아낌없는 격려는 정말 큰 힘이 되었다.

세계 최고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꿈! 나를 인정하고, 나의 가치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현대에서 그 꿈을 계속 펼쳐갈 것이다.

인간존중 정신으로 인재를 소중히 여기는 현대- 현대는 가치경영으로 큰 인재를 키워줍니다.



◆ '쌀' 문제있다

“식용쌀 수입? ...차라리 안짓는다”

근시안적 농업정책 농민부담 가중

92년 대선에서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쌀 수입은 막겠다”는 내용을 후보공약 77개중 32번째로 내세운 김영삼 대통령은 이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다뤄지자 93년 12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쌀 수입을 막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해 온 국민의 빈축을 샀다. 이때 김대통령은 “의무수입은 하더라도 결코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식용쌀 수입이 불가피하다”며 지난 8월 16일부터 식용쌀 수입을 시작함으로써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 국회의사당 앞 여의도광장에서 8천여 명의 농민들은 '식용쌀 수입금지'를 요구했다.

이와 같은 김영삼정권과 현 정부의 조변적개시 정책은 당시자민 농민들에게 거센 반발을 사고있다. 농민들은 식용쌀이 수입되는 여전·부산·인천·군산항에서 거의 매일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한편 각 시·군 단위로 해당 자치 단체장에 입교철회를 요구하는 등 바쁜 농사일정 속에서 식용쌀 수입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서 갈고 뒤야 오르는 6백평을 갈아 얻은 공주시 신촌면 산정리 이부형씨의 경우는 농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아픔을 증명하고 있다.

무도입몰량외의 수입이 없어야 할 것'과 '식용쌀 수입에 대한 김영삼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국민의 식량을 지키고 민족농업을 사수하기 위해 쌀자금을 실현할 것을 결의했다. 올해 농사를 끝지더라도 쌀 수입만은 막겠다는 각오다.

말해 '쌀정책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지적했다. 그러나 문제는 일관되지 못한 정부의 농업정책에 있다. 몇 년전만 해도 쌀이 남는다고 생산을 줄이려더니 지금은 쌀이 모자란다고 식용쌀까지 수입하고 있는 현 상황은 어느 국민에게도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전세계적으로 식량이 모자라 곡물 시세가 급등하는 지금 정부의 근시안적인 농업정책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0일 여의도광장에서 치러진 '96 전국농민대회'는 농민들의 요구를 잘 대변해 주었다. 이날 대회에서 농민들은 '의

물론 쌀에 대한 농민들의 시각이 무조건적으로 옳을 수만은 없다. 본교 식물자원학과 사공용 교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후 정부의 추곡 수매량 조절이 불가능해져 쌀 가격을 수입에 의해 조절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매년 생산량 변화가 큰 한국의 농업환경에서 1백%의 식량의 완전 자급 정책은 농민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고

정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와 그 다음이 식량이다. 세번째가 군사력이라는 공자님의 말씀을 현 정부는 한 귀로 흘리고 있다. (김희동 기자)

◇ 사회복지현황

복지수요자와 시민욕구 파악 전무한 실정

수요자 조사 확대·재정 확충 시급

우리는 언제부터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1만불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삶의 질은 1만불 시대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가 아무리 성장했다고 하나 그것은 절대적인 차원이었던지 상대적인 차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여전히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GNP의 1%에 미달하였으며 국가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6%에 미치지 못했다. GNP의 30% 이상이 사회복지비인 서구 복지 국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치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7월1일부터 9월 동안 실시된 '서울시 사회복지 기초 수요조사'는 그 의미가 크다. 이 조사는 비록 서울지역에서만 실시되었으나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로, 사회복지 대상자 수와 현황 및 대상자들의 사회복지 욕구를 알아보고자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반증이며, 다양화되고 증대되는 사회복지에 관한 시민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관련자료의 미비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회복지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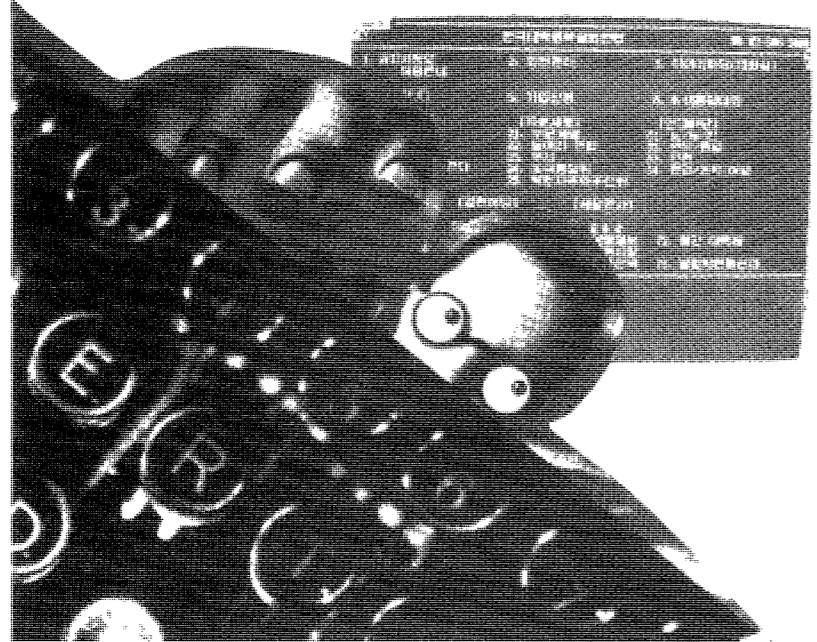
이제에 대해 이 조사의 저소득층 자문위원 수서 사회복지관장 김인숙씨는 “이런 대규모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복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이를 통해 관·민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나 수요자들간에 차등혜택을 받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

1994년 보건 사회복지 통계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 수용현황은 93년 현재 7백49개 소로 7만7천여명을 수용하고 있다. 85년 5백88개 소에 7만3천여명을 수용하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89년 1백38개 소에 1만2천28명 수용에서 93년 2백1개소에 1만3천5백33명을 수용하는 변화를 보였을 뿐이다.

이에대해 이 조사의 저소득층 자문위원 수서 사회복지관장 김인숙씨는 “이런 대규모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복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이를 통해 관·민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나 수요자들간에 차등혜택을 받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청소년·아동 △여성·가정 등 5개 부문에 관한 질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번 조사를 기획·담당한 서울 시장개발 연구원 김경혜 박사는 우리나라의 복지와 관련해 “저소득층의 경우 혜택의 범위가 좁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낮아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는 편의시설과 전문교육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노인의 경우 의료담당 전문병원이나 종합복지관이 보다 많아져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는 무엇보다 “재정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정부중심의 정책들이 지역중심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반해 복지부분은 이관되지 않아 정책실행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 존재하는 시설만 파악 되었던 것과 사회복지 정책수립에 가장 기본이 되는 수요자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이



◇ 진단-통신검열 정당인가

지나친 간섭 민주주의 망친다

가상공간(Cyberspace)에서는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전자민주주의이다. 이 개념은 특별한 이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전자(정보산업, 컴퓨터, 인터넷, 가상공간)공간에서 현실의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의 모티브는 인터넷이 구축과 함께 성장할 대화가 가능해지면서 이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념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그 기술을 가진 선진국의 정보 독재화가 잠재적 위험요소로 도사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문자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논리적 사고의 틀을 파괴할 위험, 정체불명의 가상공간과 실공간 사이의 혼돈 문제, 인간의 위상과 소외현상 등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험요소이다. 그러나 그 기원이 핵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정보 교류망이었던 인터넷이 그 확산

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자(혹은 무정부주의자)들이 담당하면서 실제 인터넷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고 이의 보장을 위한 노력이 존재하고 있다.

가상공간 자체의 한계를 넘어 가상공간을 압박하는 새로운 요소가 생겨나고 있다. 그것은 통신공간의 검열이다. 검열은 앞으로 다가올 사회를 어떻게 만든다. 특히 정치적으로 메카시적 분위기와 윤리적으로 유교적 분위기가 압도적인 한국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검열주체를 대부분의 의견은 청소년 보호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검열이란 제도는 유교적인 분위기속에서 아직까지 대중들의 인식속에서 살아남을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고(사회적 검열), 정부는 정부대로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발굴하여 억압하는 제도로 사용하게 되었다(정치적 검열). 자본은 정보를 상품으로 만들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자본적 검열).

통신공간이 열리고 전자민주주의라는 실례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최근 통신공간에서 자행되고 있는 정치적인 검열의 사례를 살펴보면 얼마나 절없는 상상인가를 알 수 있다. 정치적인 검열은 한국에서는 매우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검열이 어떤 주체에 의해 이루어 지는지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다. △정부기관에 의한 검열-안기부, 검찰의 공안부(국가보안법, 명예훼손법, 소프트웨어 보호법, 선거법 등) △법원에 의한 검열-검찰의 공안부(국가보안법, 명예훼손법, 선거법 등) △정부부서의 기구에 의한 검열-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위원회' (정

소년 보호법, 국가보안법, 전기통신사업법, 심의기준 등) △온라인 업체에 의한 검열-나우누리, 하이텔, 천리안, 유니텔 등(정보통신위원회 심의기준 이양약관) △이용자들에 의한 검열-자체적으로 사제를 요구하는 이용자들(자신의 견해와 다른면 무조건 삭제해 달라고 하는 이용자들 많이 있다) △자체검열(벌에 걸릴 것을 두려워하거나 잘릴 것을 예상해 자체적으로 적당히 적는 경우)

이러한 6가지 검열을 모두 통과하면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견해를 정당하게 밝힐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상의 운동으로 극복해야 하며 효과도 없다. 정치적 견해에 대한 검열은 시민, 학생운동의 시민사회에서 얼마나 정수되느냐에 달려 있다. 여기서 검열반대운동은 정치적 자유를 얻기 위한 운동과도 맥을 같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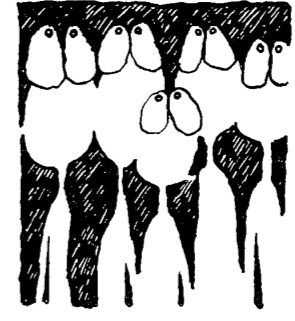
바로 얼마전 정부는 한총련의 CUG(패쇄이용자 모임)을 폐쇄했다. 이 사건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 것일까? 우선은 첫째, 둘째, 셋째의 경우에 동등하게 나오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경우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거기에 적용하기도 힘들다. 그럼 윤관법을 읽어 청소년보호법이나 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위반했을까? 사실 필자는 한총련에 매일, 매시간 접속하지는 않았으므로 위반사실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그럼 이번 사건은 한가족의 CUG를 무조건 폐쇄한 것과 무엇이 다를까?

박정민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간사)

동약로

은행나무

“여러분 긴장하지 마십시오. 지금 들리는 소리는 헬기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수위어제사 잔디깎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학교에는 헬기가 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근처에 미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리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역력히 보여준다. 본교 동문들은 '은행나무 사건'을 잊지 못한다. 80년대 초 경찰들이 학내에 상주해 사상의 자유마저 억압하던 시절, 한 문치의 유인물을 들고 은행나무 위를 올라가 그것을 뿌렸다는 선배, 외치는 두

9월12일 진군식이 진행되는 도중 잔디깎는 소리에도 긴장하는 학생들에게 사회자는 헬기는 뜨지 않을 것이라는 잠담을 한다. 그러나 20분도 채 지나기 전, 그는 분명히 거짓말장이가 되어 버렸다. 찰떡같이 믿고 있던 학생들의 머리위로 두대의 헬기가 저공비행을 한 것이다. 이에 학생들은 연세대의 악몽을 떠올리며 즉시 최루액을 뿌리지는 않을까 잔뜩 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나 이날 진군식에 참가했던 학생수는 80여명도 채 되지 않았다.

마디의 구호가 끝나기도 전에 들려오는 악몽의 그 선배. 아무리 군사정권의 탄압이 거세다 하더라도 은행나무위에 올라갔던 그 선배의 마음마저 탄압할 수는 없다는 교훈을 은행나무를 통해 되새길 수 있다.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힘겹게 일궈온 학생자치조직을 후배들은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헬기가 보이지 마자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던 학생, 그리고 진군식 주변에서 관람만 하던 수많은 학생이 모습이 떠올라 씁쓸할 따름이다.

연세대 사건이후 많은 학생들이 집회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각 학생회파다 일꾼이 없어 2학기 사업진행조차 힘들어 하는 시기에 조총하게나마 치른 진군식, 그러나 이날 나타난 헬기는 '이번 기회에 학생운동을 뿌리까지 뽑

유수한 세월속에서도 곳곳히 버려온 은행나무는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 (김기영 기자)

YONSEI FOREIGN LANGUAGE INSTITUTE & LYKEION

| | |
|--|---|
| POSCO ● 한국문화진흥 ● 연세대학교국제문화재단 ● 삼성여 ● 삼성여 | AIO아리하 ● 동아리파트 ● LYKEION ● 풍문사 |
|--|---|

※ 삼성여, 인터콘티넨탈 호텔과 과업구경(국민은행)에서 리케이온 세팅이 이루어졌습니다.

English Becomes you

리케이온은 연세대학교 연세여학원과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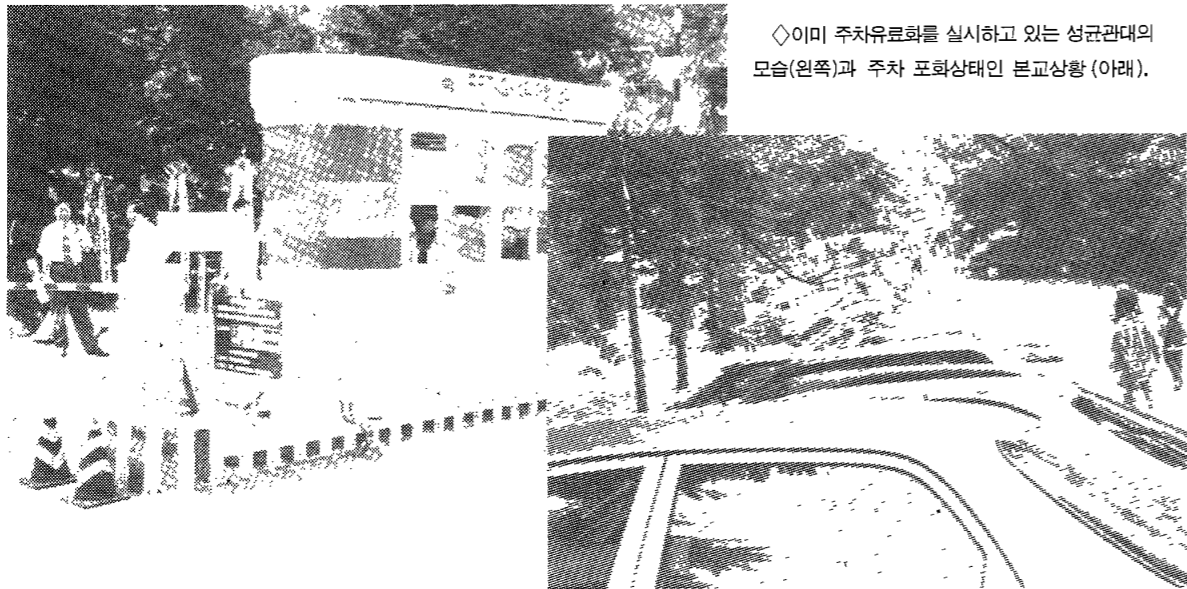
리케이온에서 생긴 일 Theme Room엔 Theme Room 수업을 처음에 할당 완료했어. 이 날은 마음대로 어떤 날은 공강으로 강의실은 그때까지 공강같이 강의실로 꾸미고 난 까지 미국에 온지 몇 달이 안 되었어. Theme Room은 Survival Game? 그라 알면서 생존게임이었어... 이러 부딪고 저라 부딪고, 그라 본교에 나중엔 미국 사람같이 생기는 거 있지. 역시 좋은 작업 부딪고며 배워야 언니네. Thank you~ Theme Room

L Y K E I O N

리케이온 랭귀지 포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66 Tel. 02-3444-2929

◇본교 주차유료화 실시의 배경

주차난 해소위해 빠르면 11월중 시행할듯 주차수요억제·교내 교통원활·면학분위기 유지등 기대 직원·학생 대부분 긍정적 반응 보여



◇이미 주차유료화를 실시하고 있는 성균관대의 모습(왼쪽)과 주차 포화상태인 본교상황(아래).

본교 서울캠퍼스의 주차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주차유료화'가 빠르면 11월중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주차문제담당부서의 주부서인 총무처(처장=열준근·통계학)의 한 관계자는 주차유료화를 실시하게된 배경으로 "좁은 캠퍼스에 주차공간을 따로 만들 수가 없으며 해마다 늘어나는 자동차로 학내 통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현재까지는 정문에서 학내 출입차량을 통제하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불법주차 차량에 붙이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주차문제와 주차질서를 해결·단속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주차유료화 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9월 10일 현재 학내 주차스티커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교수, 직원, 구내임소등 1천1백44대에 달하지만 교내 주차 가능

대수는 3백대이다. 또한 학내에 주차를 하고 난 후 그 다음날까지 주차를 하는 차량이 일주일에 5백여대이며 특히 월요일과 금요일이 각 1백여대, 2백여대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현재 총무처에서 검토중인 주차유료화는 스코내상근 교직원과 학교업무 관련 출입자 이외의 학내 진입을 최소화 함으

로써 주차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스코내에 들어온 차량의 무질서한 주차를 방지하여 내방객에 대한 주차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친절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하며 스코내의 교통을 신속 원활하게 하고 보행자에 대한 안전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단 강의실 주변이나 면학 질서를 저해하는 지역의 차량 주차를 단속하여 쾌적한 면학 분위기가 유지되도록 하며 스코내의 외곽 순환 근무로 교내 순환 및 치안 방법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캠퍼스의 인명과 재산 보호 △스코내 상근 교직원과 학생들의 신변보호 △학내 비상사태 발생시 효율적인 사태 수습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본교에서 시행하는 주차유료화에 따른 제반 시스템은 연세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차카드제가 아닌 새롭게 개발된 비접촉 무선통신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총무처의 오광진계장은 "이 방식은 진입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무선전자 스티커와 진입문의 감지기 작용으로 운전자의 아무런 동작없이 그냥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종전의 카드제를 실시 하면서 생겨난 분실, 도난을 방지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본교의 같은 가파른 입구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현관 주차 유료화에 따른 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수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 주차시스템 설치비용 2억 여원이 들어가나 주차 유료화 실시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는 지정된 금액(주차요금)만을 부담하여 여타의 기기설치 비용은 용역회사에서 부담하게 된다.
주차유료화를 실시할 경우 약 10여개의 신분상의 구분을 통해 차별적으로 요금을 받게 될 예정인데 교직원·시간강사·연구원들은 월 1만5천원, 학기당 6만원의 정가권을 예상하고 있으며 일반 차량(학생차량 포함)에 대해서는 30분당 1천원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에 대한 자가 운전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일찍이도 차 별 곳이 없을때가 많아 학생들이 다니는 길목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한 교직원은 "공간이 넓어 주차요금을 안 내도 주차를 원하는 곳에 할수 있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주차문제와 심각성을 심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이에 대해 찬성을 하는 입장이다. 학생차량은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만 학내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 때문에 학생들의 자치공간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료화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확산되고 최소의 차량만이 지정된 자리에 주차된다면 예전보다 훨씬 시원한 캠퍼스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태훈 기자)

◇경주캠퍼스 주차실태

"별일없다"무관심 차량급증...불써애야

경주캠퍼스의 경우 '차량문제'만큼은 아직까지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다는 말로 학교 학생 양자 모두 반응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본교의 차량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보면 몇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지고, 지금은 크게 부각되지 않더라도 차후에 서울캠퍼스와 같은 지경이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한 본교 차량문제의 우려점을 살펴보면 △부분별한 주차로 교통혼잡악화와 학생들의 통행의 차질 △의료원 증축공사로 병원관계자들의 무분별한 차량진입 △택시진입과 난폭운전으로 사고위험 △학생들 차량 급증으로 주차공간 부족등이며 특히 도서관, 원형관 주변을 비롯한 교내 여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본교의 차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총무과이지만 사실상 그곳에서 조차 "차량문제가 크게 부각된 상태도 아니고, 캠퍼스 공간도, 넉넉하기에 아직까지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차츰 고려해 보겠다"는 식의 불투명한 대답을 한다.
또한, 총무과에서 교직원, 교수, 학교관계차량에 교내 출입 허가 스티커를 붙여 본교에 해당되는 차량을 구별하지만 그 스티커의 효용이 불분명하여 무용지물이다.
이와같이 본교의 차량문제는 심각하게 가시화 되진 않았지만 산재해 가고 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쯤, 학교당국은 뿌리깊은 문제들을 조금씩 풀어나가 차를 가진 학생들의 학교가 아닌 수요자들의 학교로 짐서었고 정돈된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어 간다는 여론을 받을때이다. (신우용 기자)

◇타대학 주차유료화 사례

주차카드제·비접촉 무선통신방식 채택 주차공간 부족 부분적 해소...질서 정착

대학내 주차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각 대학은 '주차유료화'를 실시하는 등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주차유료화제도는 지난 94년 11월에 연세대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그밖에 서울소재 8개대학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또한 충남대, 한양대등 4개대학에서는 주차 유료화 제도를 준비중에 있는 실정이다.
'주차유료화'는 대부분 용역회사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의 시설물(부설 주차장) 이용에 대한 이용료 징수는 수익사업이 아니라 부대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 수입으로 봐야 한다"는 교육부의 서울시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와 더불어 대학측에서 불매 재정을 확

보하기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주차관리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주차 유료화의 방법으로는 크게 주차카드제와 비접촉 무선통신 방식이 나눌 수 있다. '주차카드제'는 버스카드처럼 교통통과카드를 긁어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이며 '비접촉 무선통신방식'은 각 차량에 감지기계를 달아 정문을 통과하면 주기가 통과 차량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특히 '비접촉 무선통신방식'은 차량을 정지시킬 필요가 없어 주차 카드제도를 실시하는 대학에서도 비접촉 무선통신 방식으로 전환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본교의 경우도 이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주차 유료화실시로 다수의 대학내 주차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용역회사에 책임을 맡기게 되면서 인근 직장인들이 일반 차량으로 학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밝힌 것처럼 유료화 실시로 주차공간 부족이 다소 해소되고 있으며 주차질서가 자리잡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주차유료화 실시에 따른 주차요금 설정은 각 대학마다 차이점이 있지만 (오른쪽 도표참조) 비교적 비슷한 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며 본교의 주차가격도 이들 대학의 평균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취재부)

◇각 대학의 주차요금 현황

| 구분 | 종 류 | 적 용 요 금 | | | |
|-----|----------------------------|---|---|-------------------------------------|--------------------------------------|
| | | 연 세 대 | 경 회 대 | 외 국 어 대 | 성 균 관 대 |
| 정기권 | 교직원 시간강사 명예교수 연구원 | 월 15,000 학기당 60,000 | 월 15,000 학기당 60,000 | 월 20,000 | 월 10,000 학기당 50,000 |
| | 법인 교직원 전차계산원 직원 | | | | |
| | 박사과정 석사과정 특수대학원 | 월 30,000 학기당 150,000 | 월 35,000 학기당 50,000 | 월 30,000(박사) 주간대 학원생(석사) 전연통계 | 월 30,000 학기당 100,000 |
| | 지체장애학생 | 월 15,000 학기당 60,000 | 무료 | | 월 10,000 학기당 50,000 |
| | 학교업무차량 | 월 50,000 학기당 200,000 | 월 35,000 학기당 200,000 | 월 35,000 학기당 180,000 | 월 50,000 학기당 200,000 |
| 일반기 | 일반차량 | 1,000원/30분 ①2시간 초과 30분당 2,000원 ②1일 최고 92,000원 | 1,000원/30분 ①2시간 초과 (15분 당 1,000원) ②1일 최고(50,000원) | 1,000원/30분 | 1,200원/30분 2시간초과 (2,400원 30분당) |
| | 학교관련 행사공공업무 | 할인권 1,000원 4시간 무료 | 3시간 무료권 사회교육원:무료 | | |
| | 학교남용차량 | 30분 무료 | 30분 무료 | | 1시간 무료 |
| | | | | | |

한국인의 무한에너지, 그 땅에 간다 - (3) 통일신라-장보고편

장보고 - 해상무역도(828~851)
828년 장보고가 간행한 항해전
(지금의 원도는 신라와 당나라 일본을 잇는 해상교통로의 요지로 삼각무역의 거점이었다.)

바다를 한눈에 보아도 주인이 있는 법이구나!

장보고가 기개로 의래 해적들에게 편편하게 만나는 장보고, 그의 배에 기정승이 없다.

신라가 사자 무덤에서 나오면 세상은...
한대, 한대, 한대...
우리, 우리, 우리...
우리가 우리에 하는 발걸음 버팔로가 함께 합니다.

트락패션의 名家
금강산(金剛山) 標

‘오늘 예감’ ‘PAPER’등 편견·독선 표방 잡지 인기

“지나친 이기주의” 우려 불구 다양한 문화욕구 지닌 젊은층에 꾸준히 자리잡아

너무나 개성이 강한 사람을 보면 주위에서는 ‘웃긴다’ ‘너무 튀다’라며 수근거리기 마련이다. 자신과 다르다는 것이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하고 자기 주장이 확실해서 편견이나 독단으로까지 치부되어 온 ‘오늘예감’이라는 잡지가 있다. 일반적인 문화지가 다루는 영화와 대중음악 뿐만 아니라 PC통신, 공간, 일말, 자기개발 등 문화라는 이름하에 포괄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다양한 산물, 그리고 그 안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파악하면서 단호한 불응을 해 온 문화비평자이다.

이 잡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한 정치가의 운운본부위원회 안에 있던 ‘학생문예단’ 소속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그 당시 만물잡지 기관지가 바로 ‘오늘예감’의 전신인 셈이다. 그들은 그 후 등록을 하지 않은 비합법적, 격려간지의 형태로 ‘오늘예감’을 만들어 냈다. 예초 모두 대학생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에 의해 만들어 졌다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그런지 때로는 공격적이고 때로는 자유분방하며 때로는 놀림다. 편집자인 한정수씨는 선경에서 발행하는 사보 ‘지성과 패기’ 5·6월호에서 이렇게 밝힌다.

“우리는 편파적이다. 좋다고 생각되면 좋기로 선정하고 호의적이지만 반대의 경우는 철저히 무시해준다. 그래서 적도 많다” 당당함이 서려있는 그 말에 조금은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 자신의 색깔이 분명한 계간지 '오늘예감'과 월간지 PAPER



하지만 역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동안 ‘편파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그들을 힘들게 했는지 한정수씨는 ‘오늘예감 5호’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치밀함보다 치열함을, 통찰보다 심정을, 대안보다 비아냥을 신뢰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의 입지는 늘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의 변명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이미 ‘오늘예감’은 문화연구모임이나 대학생들 사이에서 ‘오늘예감’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자신의 색깔이 분명한 다른 하나의 예로 대학가 주변 카페에 무가치로 배포되는 ‘PAPER’라는 문화정

보지가 있다. 창간원칙 1여년 밖에 안된 60페이지 정도의 타블로이드 판 잡지다. 돈을 내지 않고 볼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 ‘PAPER’ 역시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을 지니고 편견이라는 단어를 꺼려하지 않는다. 비단 ‘PAPER’의 편견으로 선정된 이달의 영화’ 이렇게 아니라도 ‘한국에 이런 가수가 있다는게 믿기지 않는다. 내가 본 최고의 가수다. 독자들은 꼭 그의 콘서트에 가시길 바란다. 후회하지 않을 공연이다. 티켓가격은 얼마다라는 기사는 ‘PAPER’의 성격을 집약하게 해주기도 한다.

‘(주)마담’이라는 패션업체에서 발행하는 ‘돈이 될 거 같아서 만들었다’는 이 잡지는 우선 한달에 한번

씩 잡는 주제 특이하다. 예를 들면 ‘RAIN’, ‘뽀’, 그리고 다음에 나올 주제는 ‘우스운 PAPER’, 편집위원이자 광고를 전담하고 있는 정유희씨는 ‘PAPER’의 색깔을 이렇게 말한다. “PAPER는 고정화되어 있지 않은 백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백지에 제멋대로의 생각을 그려가는 것이지요. 되도록이면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모두의 마음입니다. 물론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저희 목소리가 너무 답기기도 하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은 정당하지도,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말에 담담하며 그대신 책임을 지겠

다는 담담한 말도 잊지 않는다. ‘PAPER’는 이미 대학가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PAPER’만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렇다만 왜 이런 자신만의 색깔이 너무 짙어, 오히려 편견이나 독단으로까지 비춰지는 문화잡지들이 파보지 않고 살아서 꿈틀대는가. 이것에 대해, ‘사람들의 시각이 자유로워져서’ 또는 ‘개인주의적·이기주의적 성향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드러내려는 시도’ 정도로 말해지지만 가장 합리적으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늘예감’과 ‘PAPER’가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는 하나의 상징성을 지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문화 상품을 구매하려는 다양한 소비층과 그것을 충족시키려는 문화적 시도의 결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고 대학원 신문사 편집위원 손광수 군(영문과 석사과정)은 “자신의 말을 함으로써 그동안 일반적 문화에 소외되었던 하나의 문화욕구를 더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오늘예감’의 한정수씨가 한말이 기억에 남는다. “이제는 잡지가 자기힘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생산체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절충한 열정과 공격성, 리비도처럼 스스로 어디로 밀고도 모르는 달발적 임지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 난 젊어서는 정신을 믿는다.” (김삼환 기자)

달 하나 천 경애

부처님! 오 부처님



해방을 전후하여 어린시절을 보냈던 세대에게는 종교란 오로지 불교 뿐이었다. 유교나 무속은 종교이긴 일상생활 속의 한 양식으로 받아들여졌고, 오히려 도깨비바라지 달걀, 빗자루, 처녀귀신같은 환상적인 공포물들이 우리의 유산적인 의식을, 실질적인 정신세계를 지배하였다.

집에서 10킬로미터쯤 가야 하는 깊은 산 속에 절이 있었다. 그 먼 길을 할머니는 1년에 두어번, 남정네에 곡식따위를 지우고 예불을 드리러 다니셨다. 돌아오실 때는 의례 유과며 강정등을 대바구니 가득 가져오시곤 하였다. 그 황홀한 것. 그래서 우리는 할머니가 돌아오실 무렵이면 딸따미 마중을 나가 할머니를 기다리곤 하였다. 궁핍했고 먹을 것 없었던 당시를 생각하면 예배당의 과자나 학용품, 절에서 가져오는 할머니의 유과며 강정들은 잊을 수 없는 추억 속의 그리움이다.

비록 부처님을 집안에 모시지 아니하였어도 온 마을이 모두 부처님을 믿었다. 부처님은 우리를 생활 속의 움직일 수 없는 지주였고 반려자였다.

난세일수록 종교는 성한다고 한다. 신앙을 모르는 불인과 공포를 나 아닌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싶어아라. 해방후의 불인과 한국전쟁은 우리의 가슴에 그 불인과 공포를 심었으며, 그에 따라 절대물에게의 의지를 갈구하게 하였다. 그때에는 어떤 종교의 어떤 교리가 어떨다는 식의 사고는 별로 소용없지 않다. 누군가가 옆에 있어 말을 들어주고 말을 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법이다. 그러할 때 부처님은 백성에게서 너무나 멀리 계시었다. 조선조 이래 오랜 세월을 백성과 함께 껍박받았다고 할까? 그 사이를 다른 종교들이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주변은 어느새 텔레비전의 안테나와 같은 상징물로 가득하다.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전철 안에서 자비를 구걸하는 노래도 부처님의 것이 아닌 아득한 나라의 것으로 되어버렸다.

더러 어느 절대 권력자의 아량으로 세계최대의 범당이 지어졌다고도 하고, 어느 재벌이 회사로 세계 최고의 불상이 세워졌다고 하는 보도를 접한다. 그럴때면 그것들은 부처님을 접할 수 있는 백성들의 지리하기보다는 권력이나 재벌들의 인식제, 도피처로써 마침내는 관공평소로 전락해버리는 안타까움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호국의 미명 아래 살인자, 권력자에게 팔아먹은 부처님과 더불어...

최대도 좋고 최고도 좋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깊은 산속의 호화찬란한 사찰이며 불상보다는 우리 마음, 우리 동네 가운데의 조그마한 불당이 필요한 것이다. 비록 목실한 신자는 아닐지라도 슬프거나 기쁠때면 잠시 들러 자비로운 성안을 접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서민들의 극락이고 낙원이 아니겠는가!

부처님! 오 부처님! 이제는 제발 서민이 사는 인간세계로 내려와 주시옵소서.

오영진 인문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이문열 새소설 ‘선택’ 여성관 해석 둘러 싸고 논란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신보수주의 시각 두드러져 여성계 반발

한 때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유행하고, ‘여성의 변신은 무죄’라는 광고카피가 여성들의 변화를 대변해 주는 이 시대.

가부장제도 속에서 현모양처란 여성의 완상단계라고 배워오던 것과는 달리 여성은 어머니, 아내라는 역할 속에서 ‘누구얼마’로 자신을 둔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자아 실현에 매진할 것을 점차 인식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여성은 아내, 어머니, 직장인으로서 수퍼우먼의 완벽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그 흐름을 거스르고 돌연 여성은 가정으로 돌아야 하며 자신의 개발보다는 좋은 아내,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신주부예찬론’이 거론되어지고 있다.

이 때 우연인지 필연인지 동정환

소설이 있다. 계간지 ‘세계의 문학’에 이문열 연재소설 ‘선택’ 첫화분이 나와 그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세상의 슬픈 딸들에게’로 시작되는 이 소설은 ‘슬픈’이라는 뜻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과 함께 서두부분이 페미니즘에 대한 작가의 적대적 감정을 표출한 것이 아니냐는 데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조선시대 선조의 속종시대, 실제 생존했던 정부인의 내이 시대를 거슬러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슬픈 딸들에게 여성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 하라는 충고의 말과 자신의 생을 통해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인의 일대기 속에서 선택의 폭이 다분히 적었던 그 당시 여성의 삶을 다루면서 이 시대 여성들의 귀감의 대상으로 만들고 싶었



◇ 계간지 ‘세계의 문학’에 연재한 소설 ‘선택’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 여성단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이문열씨.

다”고 이문열씨는 작품의 뜻을 말했다.

그런데 정부인은 지극히 평범한 여성은 아닌 것 같다.

남성과 여성이 적극적으로 뚜렷한 경계선을 만들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했던 조선시대에 내조하는 아내, 일꾼이들을 훌륭히 키워내는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세계 최초의 요리책을 저술하

는 등 사회참여까지 한 것으로 보아 결코 평범하지만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정부인이 이시대의 여성들에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라고 충고한다면 모순이 아닐까.

한편, 이문열씨는 페미니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페미니즘이란 가정밖에서 남성들에게 갖는 적대감을 대립과 투쟁으로 드러내고, 가

정을 지키는 주부들에게 열등감에서 벗어나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1세기를 발돋움하는 이시대에 사는 여성들에게, 인간이라는 큰 틀 속에 존재하는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규정되는 역할의 정당성을 강요하는 한편,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논리 속에 여성들의 노동력을 필요로하고 하고 이들에게 적잖은 혼란을 겪게 한다.

또한, 심각한 청소년 문제, 가정 문제 등 사회문제의 원인을 여성에게 귀결시키기까지 한다.

마침내 신보수주의와 남성의 위기의식을 들먹이며 페미니즘을 여성들의 반란으로 인식하는 이 시대 여성은 슬프디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성용 기자)

문화단신

◇ 나쁜 여자가 성공한다... 최근 2년 동안 독일에서 체류하였던 작가가 독일과 한국여성의 삶에 대해 비교를 하면서 한국여성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보여준 페미니즘서이다. 김명숙 작으로 동아출판사에서 출간했으며 가격은 6천원.

◇ 제20회 동국조각대전... 20주년을 맞이한 동국조각회에 본고 출신 조각가들의 작품이 대거 전시된다. 이점원씨의 ‘나무’, 홍낙기씨의 ‘일체

드로잉’, 진철문씨의 ‘종이’ 등이 전시되며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도물아트타운 갤러리, 오는 30일부터 10월5일까지 경주 한림갤러리에서 열린다.

◇ 자유2... 대학내 저항의 정신과 Rock의 반란으로 진정한 자유를 쟁취하지 못한 우리들 자유2 콘서트가 20일 양일에 걸쳐 한양대 노천극장에서 열린다.

20일에는 강산에, 한영애, CRA-SH, 꽃다지, 이스크라가 21일은 안치훈, 시나위, 블랙홀, 조국과 청춘, 메이데이가 출연한다.

CASIO®

다양한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CASIO®가 더욱 큰 만족을 드립니다

그래픽 표시로 이해가 더욱 쉽다.

FX-7700GH

- Icon Menu선택으로 더욱 사용이 편리해졌다.
- P/C Link
- 표시동도 선택
- KL2000/2700과 연결하여 프린트
- 함수, 행렬, 통계, 확률

대학생활의 필수품 CASIO® 공학용 계산기

FX-5500L

- 67자의 전문 과학계산 메뉴선택
- 기능 전환방식
- 1095 Steps 공식메모리
- 행렬 연산기능
- 방정식, 적분, 전법
- 복소수, 통계계산

재무, 회계용 계산기

FC-200

경상대생들을 위한 재무, 회계용 계산기

- 262 Steps 프로그램 기능
- 10개의 독립프로그램 영역
- 26종의 기억장치
- 입수와 납지 계산 · 통계계산
- 재무계산(납지계산, 부채상환, 피셋트 이자율, 유효이자율, 투자평가 등)
- 비용, 판매가격, 판매수의 계산

FX-6300G

- 그래픽 과학계산
- 400 Steps 공식프로그램
- 그래프 줌 기능
- 통계기능(회귀분석, 표준편차)
- 논리연산, 분수계산
- 재생기능(감산, 수정)

FX-7300G

- 대형화면으로 복잡한 공식과 그래프도 한눈에 볼 수 있다.
- 8x48 Dots의 대형화면
- 그래픽분석 기능 (Trace, Box Zoom)
- 통계, 전법, 논리연산

FX-5000F

- 12개의 공식프로그램
- 추가공식 메모리
- 2-Line Big Display
- 전법, 통계계산
- 순열, 조합계산

FX-3600PV

- 종래의 제품보다 25배 빠른 계산속도
- 단일프로그램(38 Steps)
- 논리연산, 회귀분석
- 분수, 확률

FX-570S

- 32개 물리상수 내장
- 화기분석, 논리연산
- 복소수, 분수
- 순열, 조합
- 전법 전법/계산

FX-4100P

- 12자리 도트메트릭스 표시
- 63Steps 공식 메모리
- 역함수, 순열, 조합
- 전법계산
- 통계

FX-4200P

- 12자리 도트메트릭스 표시
- 공식 메모리(63 Steps)
- 메모기능(279 Steps)
- 역함수, 순열, 조합
- 전법계산
- 통계

| | | | | | |
|--|--|--|--|---|---|
| <p>■ 서울</p> <p>알파유통 749-0087</p> <p>라온상사 597-3631</p> <p>광명전자 752-1478</p> <p>세일상업 757-2707</p> <p>내일 753-7207</p> <p>연신상사 272-6774</p> <p>해운상사 267-3640</p> | <p>진영사 272-1761</p> <p>삼영사 272-2437</p> <p>선일상사 755-3435</p> <p>백성전자 275-4584</p> <p>백성전자 701-3339</p> <p>남대문계산기 778-0918</p> <p>진영전자 278-2775</p> | <p>■ 부산</p> <p>은고당 678-4044</p> <p>유니온상사 756-2714</p> <p>인텔 O A 569-8257</p> <p>정우상사 757-3914</p> <p>국시동해사 256-2300</p> <p>서면동해사 816-5900</p> <p>명화상회 246-4478</p> | <p>■ 대구</p> <p>기상상사 252-8871</p> <p>국제상사 254-4477</p> <p>명지상회 424-3690</p> <p>구암문구 73-9595</p> <p>국제사 44-9327</p> <p>국광사 44-3385</p> <p>(주)NEXT 528-7121</p> | <p>■ 광주</p> <p>석영전자 224-8889</p> <p>구일전자 228-9191</p> <p>영진사 55-5785</p> <p>천안문구 551-1171</p> <p>(주)시영유통 39-1931</p> <p>조출만물 37-4348</p> <p>창신문구 256-0907</p> | <p>■ 대전</p> <p>장학문구 226-0606</p> <p>목포심의원구 42-6510</p> <p>진주미영상회 41-4331</p> <p>강릉AAA사우기 648-2888</p> <p>태발문구센터 52-2495</p> |
|--|--|--|--|---|---|

CASIO 한국대리점 -

대경전자통신(주)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112-2 해운항민빌딩 3층 314-7호

TEL : 745-6123 (전), 직통 : 765-6009, FAX : 766-8505

홍산성대점 : 712-7745 (전)

수강과목 취소 신청 상대평가제 부담감 해소 방안

교무처(처장=박부권·교육학) 교무과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수강과목 취소신청을 받는다. 수강과목 취소신청은 상대평가제 실시에 따른 학생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96학년도 2학기 개설과목중 1학년 대상 교과목(교양강좌 포함) 수강자에

한해 가능하다. 개강한지 5주 이내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이 제도는 해당학기 성적표에 'W'로 표기되고 수강과목을 취소한 학생은 다른 과목을 신청할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단과대학 교과과목 문의하면 된다.

'현대 한국여성의 문학적 초상' 제 16차 한국문학 학술회의 개최

한국문학연구소(소장=홍기식·국문학)는 오는 19일, 20일에 제16차 한국문학 학술회의를 학술문화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현대 한국여성의 문학적 초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회의는 개교 90주년기념, 국문과 개설 50주년 기념, 연구소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의 의의를 갖는다. 이 행사는 남·북한 및 재외한국인 문학에 나타난 한국여성상의 전경과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문학의 어떤 특질을 반영하는가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행사내용일정을 살펴보면 19일에는 송석구*총장의 인사말과 홍기식 소장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10시=남성 작가들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의 형상 △10시40분=가사노동 담론을 통해서 본 여성 이미지 △11시20분=여성작가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 탐구 △1시40분=1970년~

80년대 소설과 여성의식 △2시20분=한국문학에 투영된 한국여성의 초상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날 발표의 특색은 남녀 학자 두사람을 공동발표자로 선정해 동일한 주제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의의와 관점을 비교·대조하는 것이다. 20일에는 △10시40분=북한의 여성문학 △11시20분=연변 조선족 소설에 드러난 한국여성상 △1시=러시아 동포문학에 투영된 한국 여성상 △1시40분=재미한국인 문학에 나타난 한국여성상 △2시20분=재일 동포문학에 나타난 한국 여성의 초상 △3시=한국여성성의 문학적 초상들의 주제발표가 있다. 이로써 재외동포문학에 나타난 여성의 형상을 살펴, 현대한국소설 전반에 투영된 한국여성상을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한다.

최형우의원 초청강연 '한국정치'에 관해

'21세기 정보화 사회-한국정치'에 관해'라는 연례 최형우 의원 초청 강연회가 개최된다. 불교, 불교, 경영대학원 주관으로 이날 19일 학술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열리는 이 행사의 일정은 아래와 같다. △17시30분~18시50분 엠버서더 호텔에서 초청주제만찬 △19시~20

시20분 학술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최형우 의원 초청강연 △20시30분 학술문화관 그늘에서 리셉션 등을 갖는다. 이 행사에는 송석구 총장을 비롯, 한 불교, 행정, 경영대학원 원장,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포함 약 3백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명진관 강의실 금연구역 지정 복도 확대 실시도 고려

관재과(과장=하정운)는 지난 13일 명진관 강의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후생복지계 김계현계장은 "평소 강의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공초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공기까지 오염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어왔다"고 금연·흡연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말했다. 박계열(특문·4)군등 대부분의 학생들은 "강의실에서의 금연은 당연한 일"이라며 "담배로 인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강의실 금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 관재과는 재떨이를 마련해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하고, 복도에서의 금연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측의 환경개구기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스스로의 의지적인 강의실 환경과 교정개구기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담배로 인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강의실 금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 관재과는 재떨이를 마련해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하고, 복도에서의 금연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측의 환경개구기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스스로의 의지적인 강의실 환경과 교정개구기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총학 진군식 지난 12일 개최

진행도중 헬기며 긴장감 조성

96학년도 2학기 총학생회(회장=유병문·불교4) 진군식이 지난 12일 불상 앞에서 오후 2시부터 약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연세대 사건' 이후 구속학생 석방과 공인탄압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구장주·야간경영4 이하 구대위)를 구성해 10여일간 전담봉사를 벌여왔던 총학생회는 이날 진군식에서 구장주군을 구대위 위원장으로 옹립했다. 또한 '한층 더 나은'의 자취를 위한 부행 결의문을 발표해 △국가보안법 철폐 △공인탄압 분쇄 △학원안정화 대책추진 △김영삼 타도 △구속학생 구출 등의 결의를 다졌다. 개회사, 애국노래에 이어 문과대학 학생회장 원준호(사학4) 군은 통일운동 참가에 관해 "어떠한 탄압도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 또한 경찰의 강경진압에 의해 치아가 8개나 부러진

박노수(수4)군은 "독재시절에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며 문민정부의 공인 탄압을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학원지주화 투쟁위원회 위원장 조자민군이 학원안정화 대책에 관련해 발언을 하는 도중 불상 위로 2대의 헬기가 3~4차례 저공 비행 해 학생들에게 긴장감을 주었으나 최후에 실패해 해상방송을 하지는 않고 사라졌다. 이날 학생들은 실천행사로 후문밖 녹두사거리에서 30여분간 시민들을 상대로 거리 선전전을 벌였으며 후문에서 정리회를 가진 후 해산했다.

총학, 오는 20일 하루주점 구속학생 변호사비·영치금마련

총학생회(회장=유병문·불교4)는 오는 20일 다량관식당에서 한가위 귀향맞이 및 구속학생 변호사비·영치금 마련을 위한 하루주점을 연다. 이날 낮에는 구속자 부모님과의 만남, 민주화 실천가족운동 협의회 어머니와의 만남 등 한가위 한마당 사업을 할 계획이며 주점은 오후 6

시부터 갖는다. 비상대책위원장 구장주(야간경영) 총학생회 총학생회장(사학4)은 "지금의 상황을 전면적으로 알리고 구속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 행사를 열게 된 것"이라고 이번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비상대책위원장 구장주(야간경영) 총학생회 총학생회장(사학4)은 "지금의 상황을 전면적으로 알리고 구속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 행사를 열게 된 것"이라고 이번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총대, 96 상반기 통상감사

올해부터 선거 공약감사 추가

96학년도 상반기 통상감사가 총대의원회(의장=전성국·광공4 이하 총대)인하 중앙감사 특별위원회 주체로 지난 8월2일부터 7일까지 실시돼 지난 13일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감사는 예년과 달리 학생들과 약속했던 사항에 대한 진척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선거 공약감사가 추가되었으며 학부위의 졸준위는 공약감사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교지편집위원회의 편집권과 자치권을 보장해 예산, 조직, 비품감사에 한해서만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동아리 연합회, 졸준위, 학복위, 야간강좌 총학생회가 모범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사를 통

해 내려진 징계는 △주위=총학생회, 졸준위, 법과대, 예술대 △경고=이과대, 사범대, 불교대 등이다. 또한 사과대 학생회와 구대위 본체와 각단 위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들, 작년 대의원 명단 등을 압수해가서 감사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총대의 한 관계자는 "대학은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학원침탈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규탄하며 "지난날 선배들이 죽음을 지켰던 학원민주화, 자주화 투쟁의 성과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써 학생회에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날 28일 경찰의 학내 수색과정에서 컴퓨터 본체와 각단 위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들, 작년 대의원 명단 등을 압수해가서 감사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총대의 한 관계자는 "대학은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학원침탈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규탄하며 "지난날 선배들이 죽음을 지켰던 학원민주화, 자주화 투쟁의 성과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람을 찾습니다... 지난 11일 학림관 소강당에서 96학년도 학생 대표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각 대표자들의 불참으로 인한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채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준만 이루어졌다. 사진은 반도 채워지지 않은 회의장의 모습. (이태훈 기자)

지정좌석제 실시

관재과(과장=하정운)는 일부 교양강좌 강의실을 대상으로 오늘(16일)부터 지정 좌석제를 시행한다. 대상 강의실은 학림관(502, 503, 504), 동국관(L101, L401, L501), 학술문화관(307, 308, 309), 강의동(203), 원흥관(102) 등 11개이고 이번 학기동안 실시되며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인데, 그 뜻을 확정한 것이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대해 후생복지계 김계현계장은 "자리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단점이 있지만 출석점검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앨범사진 촬영

졸업준비 위원회(위원장=남익희·경제4)는 앨범사진 미촬영자를 대상으로 오는 18~19일 이틀간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장소는 단체사진의 경우 불상앞, 개인 사진의 경우 정각원 앞이다. 한편 미촬영자 촬영과 함께 재촬영 희망자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재촬영자는 오는 20일 정각원 앞에서 촬영을 실시하는데 하루밖에 촬영을 하지 않으므로 희망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졸업준비 위원장은 "재촬영자의 경우 1학기 사진촬영과 상관없이 재촬영 사진으로 앨범이 제작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대 학술제 개최

법과대학생회(회장=김종길·법3)는 학술제를 내일(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사법학회, 민주법학회, 공법학회, 형사법학회 등 4개의 법대소모임의 주체로 이루어진다. 그 내용은 △사법학회 심포지엄 '의뢰 과실과 민사책임' 17일 12시 동국관(L401) △민주법학회 심포지엄 '신노사관계의 탈태, 그리고...' 18일 3시 동국관(M302) △공법학회 심포지엄 '정보공개제도와 국민의 알권리' 19일 1시30분 동국관(M302) △형사법학회 심포지엄 '부진정부작위법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지위' 19일 5시 분관 소극장이다.

공대 피켓선전전

공과대학생회(회장=구준서 전자4)는 지난 6일부터 원흥관 정문앞에서 오전 8시20분부터 9시, 저녁 4시 50분부터 5시30분까지 매일 2차례에 걸쳐 피켓선전전을 벌인다. 선전 내용은 '구속학생선방'과 '학원침탈'의 요구이다. 구준서(전자·4)는 "학우들에게 학생회의 활동모습을 보여주기 위한"이라며 "선전전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회전무대

나에게 오라
○...각 건물에 새로 설치한 무인복사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카드를 넣고 학생들 스스로 복사하는 것이지만 그 이용실태가 거의 전무하다.
도서관 2층 무인복사기 앞엔 사람들이 줄이 늘어섰지만 무인복사기 홀로 고독하고.
5천·1만원짜리 복사카드를 바로 복사기 앞에서 팔지만 학생들 알고 안사는지 모르고 안사는지.
귀다 보니 보자투루같은 무인복사기를 보면 한 경영학 교수 왈, "기획은 A, 마케팅은 F"
분수대 조심
○...본교 총학생회 진군식날 동안 하늘에는 헬기 2대가 쫓는데,
어떻게 아는지 학생들 집회 적정인원(7이) 모이기만하면 각 학교에 헬기가 여지없이 쫓는다.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전경들의 학원침탈, 경찰헬기의 교정 홍보등 육·공으로 공세하는 학원침탈, 이전 학생들 분수대(海)도 알살려야!"
그림의 떡
○...최신설비, 깨끗한 시설로 동아인들이 군침을 삼키게 하는 학술문화관.
학술문화관이 생긴지 벌써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하나 그동안 예술대에서 선보였던 연극공연을 제외하고는 학생 주관으로 열린 행사는 없었어.
실제 법과대는 행사모의재판공연을 위해 사용요청을 했으나 외부인사 초청행사나 세미나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시설이라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한 법과대 학생 왈 "약법은 빨리 시정되어야 하는 법"
두피
○...많은 이의 발을 잡는 데 자료가 있어 분회전무대자 기뻐거리며 알아보았더니,
모 남자고등학교의 동창회를 사장이 앞에서 모인다는 계기를 보고 성을 남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양 표현하고 있다며, 꼭 그렇게까지 써야겠느냐는 내용인데,
대자보를 보고 지나가는 학우들 모두 한마디씩 하며 지나가고.
그 중 한마디가 갖다가 땀을 아, "침의발에서 왜 신발 고쳐 매냐구"

'96 한가위 귀향 사업 안내

동국 가족 여러분께!
해마다 한가위가 다가오면 고향생각이 절실해지는게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옛 곡식과 옛 과일이 기다리는 풍요로운 우리의 고향길을 편안하게 안내할 '96 한가위 귀향사업'을 학생복지위원회와 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에서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동국가족 여러분이 참여하여 즐거운 고향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귀향 버스 이용 대상: 전 동국 가족(교원, 직원, 대학원생, 학부생)
2. 귀향 버스 출발 일시: 96년 9월 24일, 오전 10시
3. 집결 및 출발 장소: 대문동장
4. 접수 기간 및 장소: 9월16일~18일, 중앙도서관 앞 ※합불 및 추가접수는 19일 하루만 학복위에서 합니다.
5. 접 수 비: 5,000원(도시락, 기념품 포함 가격)
동국대학교 제28대 총학생회
동국대학교 제12대 학생복지위원회
동국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

| 귀향 버스 노선 안내 | |
|-------------|--|
| 구 분 | 버 스 노 선 |
| 강도관 | 강릉-동해-삼척 춘천-홍천-양양-속초 |
| 충북권 | 충주-문경-상주 원주-제천-영주-안동 |
| 대전권 | 청주-대전 |
| 충남권 | 온양-예산-홍성 공주-부여-서천 |
| 전북권 | 진주-지통 진주-정읍 이리-군산 |
| 광주권 | 광주-지통 1 광주-지통 2 광주-지통 3 |
| 전남권 | 목포-영산포 순천-여수1 순천-여수2 순천-별교-고흥 |
| 대구권 | 대구-지통 김천-구미-대구 울산-지통 경주-울산 |
| 경북권 | 포항-지통 영천-포항 부산-지통1 부산-지통2 부산-지통3 밀양-김해-부산 |
| 부산권 | 마산-지통 진주-삼천포 창원-진해 |
| 경남권 | |
| 계 | 총 30대 차량 확보 |

'수강과목 취소' 신청

'96학년도 2학기 개설강좌 중 학사내규 제14조(수강과목의 취소)에 의거 수강과목 취소(W) 시행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9. 19(목)~20(금), 2일간
- 장 소: 소속대학 교학과
- 수강과목 취소:
1) '96학년도 2학기 개설과목 중 1학년 대상 교과목 수강자에 한해 수강 과목 취소 가능(단, 수강과목을 취소한 자는 다른 과목을 신청할 수 없음)
2) 취소과목은 해당 학기 성적표에 "W"로 표기됨.

교무처장

영국유학설명회 개최

학생생활연구소에서는 최근 세계화 추세와 함께 해외유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것과 발맞추어 영국유학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 시: 1996년 9월 20일(금요일) 오후 2시
2. 장 소: 사범대학 3층 교육매체센터(J 312호)
3. 초청기관: 영국문화원
4. 내 용: 영국유학에 관한 설명(VTR상영, 질의응답 등)

학생생활연구소장

학사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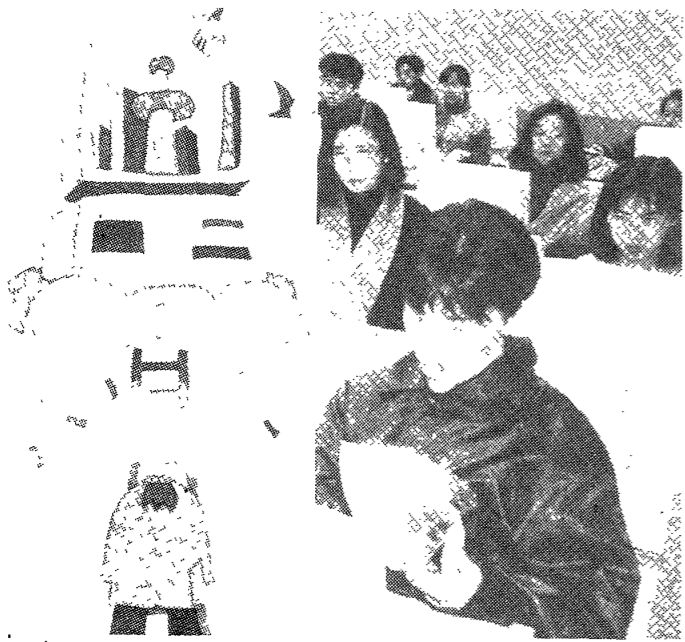
'97학사사관후보생 모집
1.모집인원: 00명
2.지원자격: 4년제 대학 졸업/졸업예정자(입원일 1일기준 만20세~27세까지 남자)
3.지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96. 9. 18~10. 19
-장소: 학군단
-구비서류
· 지원서(사진첨부) 1부
·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주민등록 초본, 등본/호적등본 각 1부
· 자격증 사본(취득자에 한함) 1부
· 칼라사진(4x5cm) 6매
· 타군출신자는 해당 군함모용장 추천서 1부
4.선발절차
-서류전형(대입학력고사성적50%, 대학전학년 성적 30%, 체력검정 20%, 면접)
5.합격자 발표: '97. 2. 28
6.특전
-본인 희망시 부부연장 및 장기복무지원가능
-장기지원시 군내의 민간대학원에 국비 입학가능
-전역후 일반기업에 취업일선

'96군장학생(후반기)모집
1.모집인원: 1학년(00명), 2학년(00명), 3학년(00명)
2.지원자격:
4년제 대학
1학년('74.1.1~'80.1.1출생자)
2학년('73.1.1~'79.1.1출생자)
3학년('72.1.1~'78.1.1출생자)
3.지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96. 9. 16~10. 25
-장소: 학군단
-구비서류
· 지원서(사진첨부)및 사약서 1부
· 대학성적증명서 1부(1학년 제외)
· 복무연장 및 장기복무지원서 1부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 2부
· 재정보충서 및 보증인의 인감, 납세증명서 1부
· 사진(4x5cm탈모양상선신) 7매
4. 선발절차
-1차: 서류전형(입학/대학성적), 면접, 체력검정
-2차: 신체검사, 심원조회
5.합격자 발표: '97. 2. 10
6.특전
-학군사관 지원시 가점 부여, 선발시 우대(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자동선발)
-대학 졸업시까지 장학금 및 수혜조치 혜택
-국내외 민간대학원 석·박사취학 기회부여(장기)
-미국 및 우방국 군사교육(장기복무자)
-에비군 지원관, 군무원 채용

제112학생군사교육단장

한국 대학생 무엇에 쫓기나

‘기동·범생·거미줄’ 등 신종컴플렉스 출현 대중매체와 자본에 길들여져 “나 아니면 안돼”



◇무한경쟁을 지향하는 자본주의 구조속에 한국의 대학생들은 ‘범생’ ‘기동’ 등 수많은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다. 위의 경우는 ‘외국어·컴퓨터를 하지 못하면 산업에 거미줄 친다’는 거미줄 컴플렉스를 나타낸 포스터와 사진.

내가 대학물을 조금도 먹지 않은 고3때, 대학은 내게 ‘꿈’이며 ‘희망’이며 ‘전망’이었다. 수많은 시험을 통과한 승리자만이 ‘공부’에 대한 의무를 벗어날 것이고 미팅과 술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곳...

그 당시, 내 기억이 틀림없다면 나의 이런 환상을 주위사람들과 대중매체는 조금도 말리지 않고 더욱 부추겼던 것 같다. “대학만 가면, 이런 고생 끝난다”라는 말이, 당시 내 주기도문이 되버릴 정도였으니까.

단점만 속 낸 어른들의 대학얘기는 그럴듯하게 들렸고, 배웅준, 김지호를 일반대학생으로 그려낸 ‘사랑의 인사’는 무언히 재미있었다. 밀고당 기기사의 연애가 주를 이루고 있는 그네들의 일상사도 순정만화 주인공같은 배웅준, 김지호의 위력에 가려 대단하게 보였다. “배웅준같이 멋있게 생긴 남자와 사귀는 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사명처럼 느껴졌다.

이러한 환상을 품으며 개신장 군이래도 된 양 대학문을 들어섰을 때, 꿈꾸던 대학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심각한 의무감만 나를 울거렸다. 신입생 환영회때, 선배들은 난생 처음보는 아이에게 대충 “너, 뭐 먹고 살거냐” “요즘 고민이 뭐냐” “꿈이 뭐냐”라는 어려운 질문을 던져 주었고, 강의시간마다 교수님들은 외국어·컴퓨터의 중요성을 목소리 높여 얘기해 주었다. 컴맹이고 외국어능력이 떨어지는 나는 불안감이 그치지 않았다. ‘무한경쟁속에 취직도 못하고 산업에 거미줄치는 것은 아닌지’라고.

한국의 대학생이었던 한변준 교

서 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극복방법역시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뒤통수 교육구조하에서 또다른 컴플렉스로 작용하고 말았다. 전자의 경우로 작용한 컴플렉스는 범생 컴플렉스, 학력위주의 분위기 속에서 공부 잘해 1등을 해야만 한다는 대학생들의 강박관념이다.

후자의 경우로 작용한 컴플렉스는 기동컴플렉스, 체제순응적 인물임을 전제로 하는 국가와 가정이 중추적 역할을 강요하는 컴플렉스다. 대학생에게만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강요된 컴플렉스다. 이는 연령대별로 나무(기동) 나무로 만들어 짐을 유의하길...에 비유되어 온 말에서 찾을 수 있는데, 아주 어릴때 ‘털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듣는다’ 강박에 쌓여 있다가 어렸을 때부터 강요된 컴플렉스라는 이름의 종합편으로 집안의 ‘기동’과 동시에 나라를 끌고갈 ‘기동’으로 인정받게 된다.

자신들의 ‘기동’성을 견고히 디지털기 위해 대학생들은 토익, 토익실력을 건설하길 쌓아야 하며 자신의 경쟁상태를 점검하고 ‘나’가 ‘세계화’를 외쳐야 한다.

학력위주의 분위기 속에서, 무한경쟁을 지향하는 자본주의 사회구조속에서 이러한 대학생들의 컴플렉스는 불가피한 일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체제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대학생들까지 자본의 이윤을 좇아 조금씩 길들여지고 있음은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배웅준과 같은 스타를 내세워 환상적 연애를 대학생들의 숙명적 과제인양 과시하는 정준드라마, ‘당신의 경쟁력은 누구입니까’ ‘세계일류~○○이 앞서갑니다’ 등의 광고에 혹해서, 절친한 친구를 ‘경쟁상태’로 보고 갈пам을 걸고 있는 대학생들도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당근’과 ‘채찍’을 구사하는 대중매체의 홍수속에 무비판적으로 ‘경쟁’ 논리에 순응하는 우리의 자화상 때문에 지금의 현실은 더욱 각박하게 느껴진다.

‘대중매체와 자본만 쫓아 쫓는 것이 한국대학생의 자화상이 아니냐’는 말에 찢어질 듯할 수 있는 대학생들은 과연 무엇이 될까? ‘대중매체와 사회가 나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변명하던 변명을 할 때는 아니다. ‘자본주의’와 ‘무한경쟁’의 막대한 논리앞에서라도 ‘비판정신’이 결여된 우리의 자화상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한누리 기자)

다자간 컴퓨터 게임 진단

가볍게 즐기지만 인간소의 대안없어

영화 ‘데틀리선’에서의 ‘가상세계’, 토탈라콜에서 ‘아놀드슈왈츠네거가 화성을 가는 것’, 이것은 가상 즉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에선 감정 등을 느낄 수 있는 공간 개념이 아니라, 단지 PC통신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정도이다. PC통신 동호회에서의 만남, 채팅 그리고 머드게임들.

그럼, 잠시 머드게임으로써 사이버스페이스를 추론해 보자. 그것은 등장인물이나 장소같은 것이 없이 단지 언어를 수단으로하는 것으로, 주사위를 던지는 보드게임에서 비롯된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큰 공원에 미로를 생각하고 다수의 참가자들이 자기 다른 곳에서 출발하는데 미로사이에서 나오는 힌트를 풀어가며 최종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가 보드역할을 하고, 참가자들은 가상공간 속에서 의사소통을 하며 미로의 출구를 찾아 헤메는 것이다.

여기서 머드게임, 좀더 확장시켜 ‘사이버스페이스’의 진정한 의사소통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이 던져진다. 이에 하버마스는 ‘TV나 전화, 인터넷의 확산은 모든 것을 분산시킨다. 그 결과 지구적 의사소통의 공동체가 서로 곁집된 채 어지럽게 확대되는 경향을 띠게된다’고 말한다. 사이버공동체는 사이버일 뿐 실체가 될 수 없고,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인을 분절화시킨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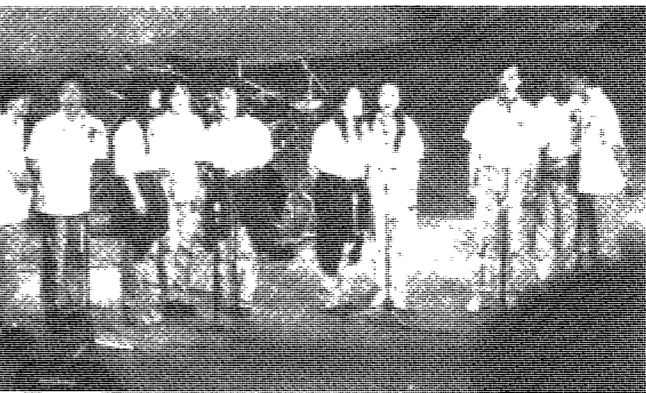
컴퓨터 중독자들은 뉴미디어로 인해 소외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문화과학 9호 정보화사회와 뉴미디어,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김주환씨는 ‘대중매체에 의해서 현대인은 외부에 의해 자신의 의사와는 별도로 소외되었지만, 상호작용의 뉴미디어에 의해서 자신의 내부로 자기기 원하기 때문에 소외되고 있다’고 말한다.

인간소외에 대한 대안이 없는 현재 미디어에 대한 불안을 계속 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호부)

지역문화탐방 - 국립극장 ‘문화광장’

일상에서 활기 찾는 젊음의 향연



◇본교 가까이에 위치한 국립극장에서 매년 대학동아리나 시민아마추어도 임들의 순수공연 ‘문화광장’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29일 대학동아리 페스티벌 공연.

지난 7일 오후 6시 국립중앙극장이마당.

3백여명의 목소리가 하나되어 야의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향음예스트라단의 연주에 맞춰 남녀노소의 관객이 한데 어우러져 ‘손에 손 잡고’를 합창하고 있었다. 매주 토요일 오후6시 국립극장에서 주최하는 문화광장의 행사중 ‘가을밤의 음악회’의 한 모습이다.

이 행사에서 특이한 점은 대학동아리나 시민아마추어 문화모임의 공연이 자주 열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박수만 치면 기존의 콘서트는 달리 가족이나 친구들의 공연에 함께 어우러져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를수 있다.

올해 가졌던 24번의 행사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 4월29일 열렸던 ‘대학 동아리 페스티벌’이다. 이 화여대 ‘실로암’의 민들레 공연, 서울시립대의 그로서운드 ‘제네바’의 공연, 중앙대 ‘순정사랑’의 수화공연, 서울경기지역 대학연합 합창단 ‘쌍투루 코러스’의 공연으로 꾸민 이 행사를 위해 공연자들은 장기간의 합숙기간동안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여기서 관객들은 그들의 순수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주말인 2일에 또 하나의 어울림이 펼쳐진다. 사상자춤, 발목춤, 노장춤, 사자춤의 순서로 진행되는 마당극 ‘봉산탈춤 한마당’. 이 자리에서 민중의 오락적 요소가 특색 담긴 봉산탈춤의 성격을 한껏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심)

메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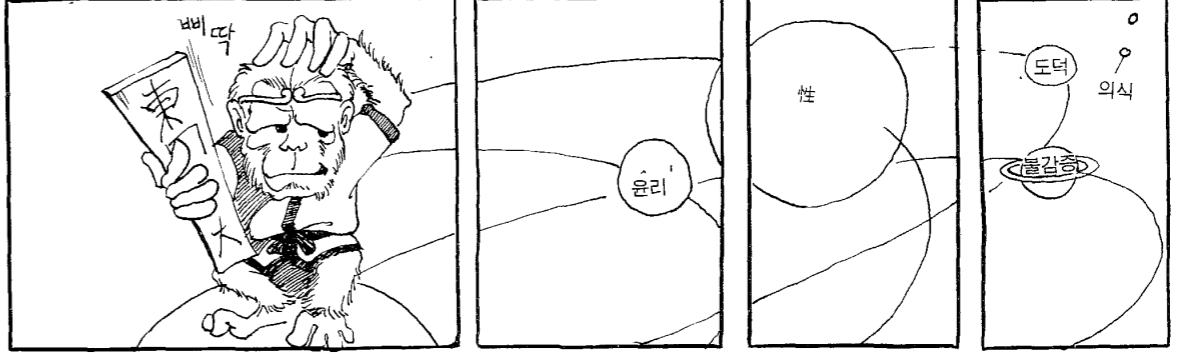
학회 위기론

▲구조사회주의의 몰락, 문민정부의 탄생,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강화, 자본의 대확포산, 진보운동의 혼란, 커리의 부재, 학회위상의 불분명, 공부만하는 선배들, 책임이 싫어하는 후배들... 이는 우리 학회현실의 실상이라고 지리멸렬한 학회현실에 대한 다양한 원인론이다. ▲학회운동은 우선 1학년 중심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 ‘진보적 학문을 매개체로 한 생활공동체’라는 규정속에 속하기 힘든데 이는 진보적학문에 대한 열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비제도권적 영역인 학회가 제도권의 교육체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회가 힘에 부친 상황이 분명함에도 이를 지원하고 바쳐주는 진보적인 조직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회의 한계는 명백하다. 대중성의 확장과 보

는 전문적 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실천하는 도구이다. 그렇다면 학부제 속의 학회는 어떠한 것인가? 대학 진보적 이데올로기 체계로서의 붕괴로 인한 학회의 쇠퇴는 학부제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기능을 한다. 90년부터 시행된 학부제, 현실적으로 대안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학교당국과 학생들은 지금까지도 자치영역을 계획하고 준비해오며 하는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다. ▲학생운동 내에서 생산된 ‘위기’담론 양산 보여도 학부제는 대학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수세적인 투쟁’. 이것은 학회의 붕괴와 대중운동 노선을 단절시켰다. 학부제 속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지는 학회, 이제 더이상 수동행방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영)

면적인 모습으로 나가기 어렵고 자칫 80년대와 같이 투사와 활동을 배출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치부되어 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이에 학회는 대학 내에서 진보적 이데올로기를 생산시키고 유동시킴으로서 이데올로기의 체계모니를 쥐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학부제는 하나의 태풍의 눈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

자아정신 고대성(4)



Advertisement for SUNKYONG HUMANAGEMENT featuring a runner and the text 'CHALLENGE 선경인, 21세기를 향해 뛰는 사람들 선경은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선경을 키웁니다.'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SUNKYONG HUMANAGEMENT.